

March

April

#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 Special theme

만성질환의 합병증까지 철벽 방어  
Guardians of Health ②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당뇨병’의 합병증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기획상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0 대한의사협회 원보콘테스트'  
동상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별상

'2010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  
대상

즐거움 편지

## 모두에게 웃음과 활력이 가득한 봄이 되길 바라며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며 우리의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 2024년의 봄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일 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도 더욱 활기찬 마음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웃음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3+4월 호에서는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에 대해 짚어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신경병증, 당뇨병발, 당뇨병망막병증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한양대학교의료원 의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Dynamic Hanyang 코너에서는 2024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임 교수진을 소개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과 인연을 맺은 소감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떤 의사로서 환자들을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분들이 새로운 전임 교수진으로 함께하게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anyang Topic 코너에서는 환경 개선 공사를 끝내고 수검자를 맞이하고 있는 한양대학교구리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만나봅니다. 이동 동선을 재정비하고 대기 공간을 넓히는 등 수검자의 편의를 생각한 건강증진센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만난 봄, 그래서인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켜고 새해 계획을 다시 되짚어봅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도약하며, 매일 건강관리에도 힘쓰는 봄이 되길 바랍니다.

이형중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직무대행 이형중







## 삶의 질을

##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 ‘당뇨병’의 합병증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당뇨신경병증, 당뇨발, 당뇨망막병증 등 관련 합병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적 관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을 알아본다.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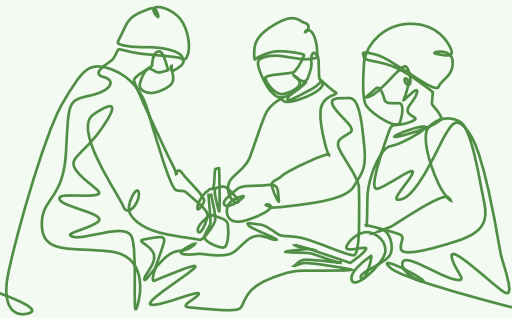
Vol. 186 2024 March / April

02	즐거운 편지	모두에게 웃음과 활력이 가득한 봄이 되길 바라며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윤영은 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08	미래의학 프론티어	신진호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12	Dynamic Hanyang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임 교수진
16	Guardians Of Health II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당뇨병'의 합병증
18	Special theme ❶	오랜 당뇨로 신경손상 '당뇨병 신경병증'
20	Special theme ❷	작은 상처에서 절단까지? '당뇨발'
22	Special theme ❸	눈앞이 얼룩덜룩, 원인은 당뇨? '당뇨망막병증'
24	Hanyang Topic	새로운 건강증진센터에서 질병을 조기에 찾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 리뉴얼
28	주목할 만한 연구	다국적 코호트에서 라니티딘 사용 및 암 발생
30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배우 김우빈과 비인두암
32	Best Partner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34	Dr. Opera	샤를 구노 특유의 섬세함과 귀족적인 품격을 갖춘 걸작
36	Dr. Movie	라쇼몽 효과에 대하여
38	예술과 의학의 만남	루이스 윌리엄 웨인과 유방암
40	고마운 당신에게	서현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피부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42	언론 속 한양인	
44	Hanyang News	
46	Hihy 건강저장소	
48	발전기금	
50	이달의 이슈	
51	외래진료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4년 3월 13일 통권 186호 발행인 이형중 편집인 노성원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디자인 김미진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http://www.hyumc.com) 혹은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모델: 한양대학교의료원 캐릭터 HY-Leo(하이레오)

# 환자가 더 웃을 수 있게, 해보고 싶은 연구가 많은 고민 많은 의사



## 윤영은

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풀어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풀릴 때까지 연구하는 끈기,  
자신에게 온 환자는 웃음 지으며 퇴원했으면 하는 성심,  
많은 연구와 임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의사.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외면의 부드러움과  
내면의 단단함이 조화로운 윤영은 교수를 만났다.





##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꿈 '의사'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장래희망에 어떤 꿈을 적었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싫은 것도 많았던 어린시절, 자고 일어나면 꿈이 몇 번이나 바뀌어 있던 그때, 윤영은 교수는 의사의 길을 걷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첫 기억을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말했다. 어쩌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윤영은 교수다.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과의 의사가 되겠다고 구체적인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그 때가 처음이었어요. 친척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그분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존경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당시의 막연했던 꿈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인턴과 전공의를 거친 윤영은 교수는

인턴 때 수술하는 의사, 췌장(Surgeon)이 되겠다고 결정한 뒤 다양한 파트를 거치며 비뇨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지금도 비뇨의학과는 남성이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남성의 생식기관부터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요로계에 이르기까지 비뇨기 계통에서 생기는 결석이나 종양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다양한 파트에서 배우고 습득하면서 비뇨의학과에 특별한 매력을 느꼈어요. 우선, 수술을 받은 후에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서로 간에 웃으면서 퇴원할 수 있는 파트였어요. 비뇨의학과는 퇴원을 굉장히 빨리하는 과중 하나인데요, 수술 후 퇴원까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도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 고령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질 비뇨의학과

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는 비뇨기종양, 남성의학, 배뇨장애, 여성비뇨기학, 소아비뇨기학, 내비뇨기학, 신장이식 및 요로재건 등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중 윤영은 교수는 전립선암, 신장암을 비롯한 비뇨기계 암 치료와 요로결석 치료를 주로 하고 있으며 신장이식 공여자 적출술을 맡고 있다. 고령화 사회 추세에서는 전립선질환 및 비뇨기 종양, 배뇨장애, 여성비뇨기질환 등의 분야가 대두되는데 윤영은 교수 역시 이에 동의하며 비뇨의학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남성 10대 암 중 3개인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을 치료하고 있다.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과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인식이 확연하게 바뀌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다빈치로봇, 최신형 체외충격파쇄석기, 미세수술용 장비, 복강경/내시경 장비 등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광범위 근치적 수술에서 로봇수술, 미세수술, 보존적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등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및 회복에 초점을 두고 지원에 힘쓰고 있다.

“비뇨의학과로 결정하고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깊게 생각하며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비뇨의학과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연구도 많아지고 있죠. 앞으로 점점 환자가 증가한다면 의사 수요 역시 많아질 것이에요. 의사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꾸준히 연구한다면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 실험실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해외연수

배울 것이 많아 즐겁고 이 배움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는 윤영은 교수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 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의 무어스(Moores) 암센터에서 난치성 전립선암의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돌아왔다.

“미국에서는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신약이 출시되고 있는지 직접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실험과 임상을 병행하다 보니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 느꼈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실험실에서만 살았더니 개인적으로 배운 점이 많아요. 연수를 다녀오니 한국에서 제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후속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비뇨의학과에서는 초기에 암이 잘 진단되어 수술로 완치되는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난치성 암이나 전이성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도 있다. 그래서 윤영은 교수는 ‘기초 연구’에 더욱 집중하려고 한다. 해외연수에서 진행한 연구의 연장이다. 전이성 신장암 환자의 항암요법과 최신 치료 방법, 신약 개발의 앞당김 등과 같은 그동안 주력해온 연구에, 해외연수에서 얻은 전립선암 연구까지. 윤영은 교수는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새로운 연구나 신약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를 계속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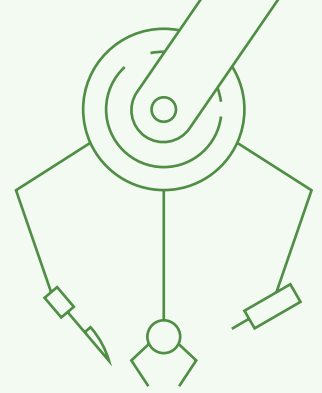
윤영은 교수가 해외연수를 통해 배운 점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다. 가족이 동행한 1년 간의 해외연수는 윤영은 교수에게 다른 의미의 ‘쉽’과 같았다. 한국과 다르게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고, 집으로 돌아와 매일 가족과 식사하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껴본 윤영은 교수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대하는 시선과 방식도 달라졌달까요. 내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들여다보게 되었어요”라고 밝혔다.



“

의사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환자가 원하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




### 환자가 웃을 때 가장 행복한 의사

〰〰

환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치료에 더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더 성장해 나간다는 윤영은 교수는 “의사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환자가 원하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환자의 만족도가, 환자의 웃음이 곧 내게 기쁨이자 보람이에요”라며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를 공감시키는 그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시절 굉장히 존경하던 스승이 있었어요. 제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아니 은퇴를 할 때쯤 누군가에게도 제가

그런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것으로 제 역할은 다 하지 않았나 싶어요.”

궁금한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서 늘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는 윤영은 교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밤을 새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집과 병원까지 40~50분 정도를 음악을 들으며 걸어보기도 한다. 교수진, 연구원과 끈임없이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이 크게 남다를 것이 없는 보통의 삶이라 더욱 친근한 우리의 ‘의사 선생님’이다. 



# 고혈압 만성질환자를 들여다보며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다

신진호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 새로운 길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⑧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지사.

그 혼한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몸 밖으로 드러나는 질병만 그때그때 치료하면 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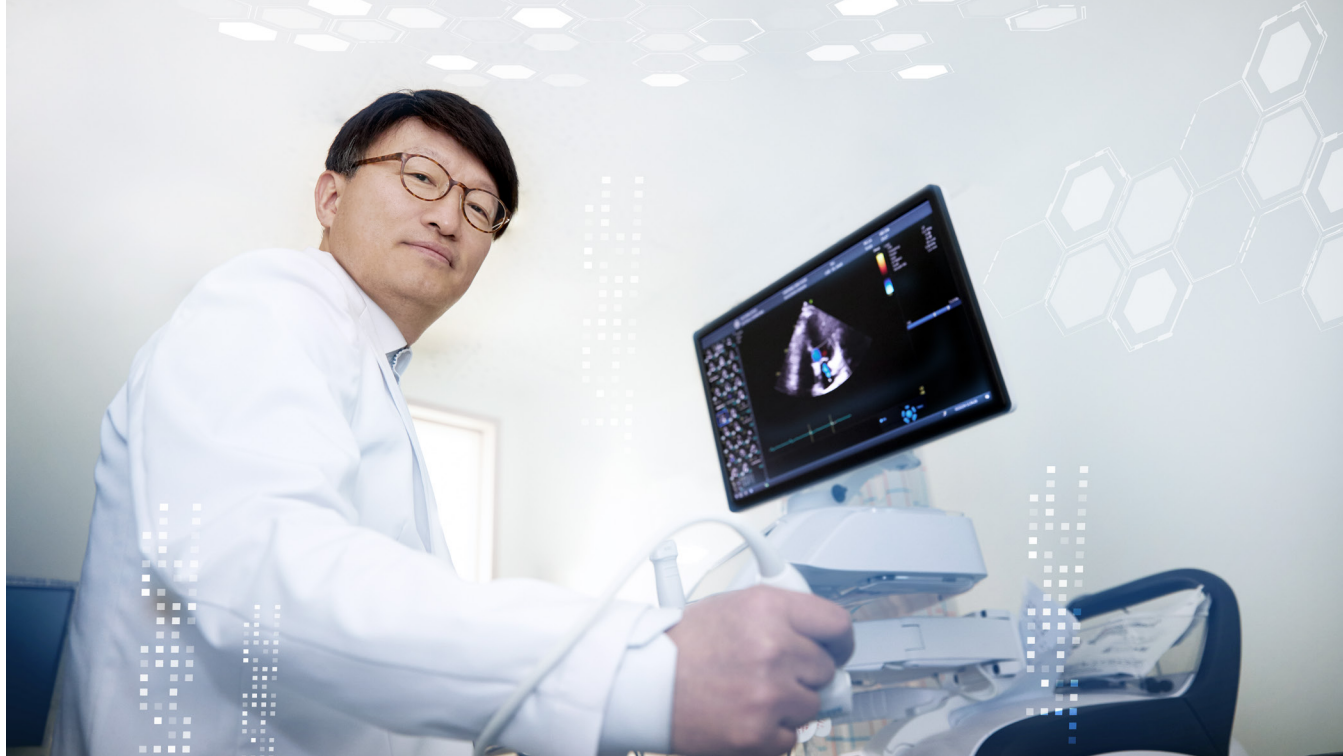
신진호 교수의 고혈압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예방, 이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심장내과에서 고혈압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고혈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심장내과에서는 심장질환을 비롯해 동맥에서 말초 혈관에 이르기까지 전신의 혈관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고혈압, 이상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질환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동맥경화, 심부전, 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등 다양합니다. 저는 협심증, 심부전, 일반부정맥, 일반심장학 등을 진료하고 있으며 전문분야는 심장영상, 심장초음파입니다. 내과를 지원할 때부터 임상시험에 관심이 많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OO압에 걸렸을 때 OO약을 써야 된 다'라고 하면 '이러한 결과는 어떤 연구를 통해 나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궁금했어요.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 내과 중에서도 심장내과를 선택한 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연구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혈압이라는 질병은 특정 장기의 질환이 아니라 말초혈관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에 있는 직경 0.1~0.3mm 정도의 실타래에서 시작되는 병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을 유지해야 되는 심장이 압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심장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며 심장 구조에 변형이 오고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심장은 사이즈가 크고 두꺼워서 터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낮지만 혈관은 다릅니다. 아무리 굵은 혈관도 1~2mm 정도로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불안정해지면 손상되는 것은 혈관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과 혈관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고혈압 연구와 아주 밀접합니다.

**Q. 교수님과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으니 심장과 고혈압의 관계가 쉽게 이해 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교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 연구가 더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팩트시트 2022』 자료를 보면 20대 이상 성인의 약 30%인 1260만 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 중 69.5%만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받는 환자는 6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에 상처가 나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따른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고혈압은 증상도 없고 '혈압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혈압 자체를 낮추었을 때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예방 효과의 신뢰성은 매우 높습니다. 혈압을 낮추면 이에 따른 이득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예방' 차원에서의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연구에 몰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급성질환모델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 치료 동기가 매우 빈약한 환자 등 만성질환모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Q.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암을 진단받았을 때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은 치료를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질환의 발생 시점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일단 내버려둡니다.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이 질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 사회가 되면 사람이 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중심에 둔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혈압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가 이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환자가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을 유지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됩니다. 약만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완벽하게 조절되지는 않으니 식습관이나 생활 행태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겠죠. 기존의 급성질환모델을 기준으로 환자를 만나고 연구를 해온 의사가 치료 동기가 아주 낮은 환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접근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과정을 의료혁신의 하나로 표현합니다. 고혈압 예방을 하러 온 환자라 상처가 나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차별성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하게 된다면 더 이상 고혈압 관리 지표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Q.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듣고 있으니 정말 원론적인 이론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환자의 마음을 읽는 것, 대화를 통해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네요.**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에 놀라고 친절함에 한 번 더 놀랍니다. 대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예요. 최근 챗봇을 이용한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실제 의사와 챗봇 의사 중 일부 환자는 챗봇 의사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의 공감 능력'을 체크하는 설문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Q. 교수님은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항성 고혈압 연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고혈압 환자 중에 약을 써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 조절이 안되는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항성 고혈압 환자 중 많게는 약 절반 정도가 약을 잘 안 먹습니다. '어떤 이유로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까', '복용하지 못하는 환경이었을까'라는 동기의 관점에서 '환자가 약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왜?'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접근 방식 자체가 없어요.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자주 개발하게 되는데 원론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죠. 예를 들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약을 스스로 먹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채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안 좋다고 해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안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치료를 하다가 중단해도 당장은 괜찮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 **Q. 저항성 고혈압 환자의 치료 방법도 고민하신다 들었습니다.**

최근 조정기 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와 함께 복강경 신장신경차단술을 진행했습니다. 심장내과로 내원한 환자였는데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해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였죠. 복강경을 이용한 콩팥신경차단술이 호주에서 최초로 진행될 때는 고주파가 아니라 기계적인 차단이었는데 이번에는 신장동맥의 끝부분을 타고 들어가는 교감신경을 복강경 고주파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혈관 내벽에서 혈관벽을 지나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교감신경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는 아예 없었는데 그 이유는 혈관 외벽에 밀착되어 있지 않은 신경에는 고주파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첫 케이스가 완료가 되었는데 보편화된다면 저항성 고혈압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신약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약이 출시된다면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상당 수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적인 면에서 개선을 가져올 여지가 많은 부분이니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고혈압 환자를 위해 앞으로 어떤 연구를 이어갈 계획인가요? 포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임상시험에 관심이 많다는 것, 계속해서 리서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느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나 숫자를 보면 제 호기심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기에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한 번 재면 수치 하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혈압의 모습을 프로파일링 하는 거죠.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환자의 치료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치료를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야간 혈압 연구도 중요한데 밤에 혈압이 안 좋으면 예후가 좋지 않아요. 혈압을 24시간 측정하는 기계는 있지만 불편해서 한 번은 해도 두 번은 안 하게 됩니다. 반복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에는 쓰일 수 있지만 환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할 때는 거의 시행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기계적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나온다면 야간 혈압을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해지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3~5년 정도 치료하면 전체 고혈압 치료 전략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게 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측정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니 정말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만의 연구 데이터로 전체적인 치료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도전할 만한 과제이죠.



뚜렷한 목표는 언제나 성공률이 높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보다 ‘이루어낸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신진호 교수.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과 올바른 진찰과 치료를 위해 다시, 또 다시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신뢰감은 자칫 기분 탓만은 아니리라. 🌟





이상표 소화기내과 교수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문신제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박권오 혈액종양내과 교수

##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임 교수진

안자혜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경식 외과 교수  
김보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김지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박계영 가정의학과 교수  
손준혁 소아외과 교수  
유승진 영상의학과 교수



2024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임 교수진이 임명되었다. 이상표 소화기내과 교수,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문신제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박권오 혈액종양내과 교수, 안자혜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경식 외과 교수, 김보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김지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박계영 가정의학과 교수, 손준혁 소아외과 교수, 유승진 영상의학과 교수 등 총 11명이다.

소화기질환의 위장관 파트 담당으로 새로 온 이상표 소화기내과 교수는 “병원마다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 내시경시술법 등 경험을 토대로 한 배움과 진료, 연구, 교육까지 어느 한 가지에도 소홀함이 없는 의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한양대학교병원과 함께 시작하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소아청소년정신의를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문제를 통찰력 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라며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분비대사내과에서 내분비, 대사호르몬 진료 담당으로 함께 하게 된 문신제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만성질환 환자는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가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임 교수진으로 함께하는 소감을 전했다.

혈액종양 분야에서 종양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박권오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종양 분야에서 10년 정도 진료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진료 및 연구 경험과 충분한 에너지로 환자분들을 만나겠습니다”라고 밝

혔고, 신생아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안자혜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출생 초기부터 도움이 필요한 신생아, 그 중에서도 출생 체중 1000g 미만의 이른둥이 아이를 합병증 없이 잘 살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와 보호자를 더 다정하게 보듬어주겠습니다”라고 이른둥이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보듬고 치료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진료하는 박계영 가정의학과 교수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소아외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손준혁 소아외과 교수는 “한양대학교병원원은 소아외과의 역사가 깊은 병원입니다. 이러한 곳과 인연을 맺게 된 것에 감사하며 ‘어린이에게 친근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흉부 및 심장영상의학 진료를 담당하는 유승진 영상의학과 교수는 “지식 및 경험 교류를 중요시 하며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또 인간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영상 진단으로 환자의 진료와 연구 및 의료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며 진단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새책이 움트는 활기찬 봄과 함께 찾아온 11인의 새로운 전임 교수진.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맞이하겠다는 공통된 마음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의 ‘사랑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이 아닐까? 한양대학교병원과 새로운 전임 교수진의 만남을 축하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 이것이 궁금합니다!

1. 담당하고 있는 진료 분야는 무엇인가요?
2. 교수님 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3. 어떤 의사로 환자를 만나고 싶나요?
4. 앞으로의 계획 및 포부는 무엇인가요?
5.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표 소화기내과 교수

1. 소화기내과에서 위장관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여러 병원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실력과 친절 모두 겸비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4.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의, 전공의, 소화기내과 전임의(2년)를 마쳤습니다. 다시 돌아온 만큼 개인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환자의 아픔과 걱정을 함께 느끼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청소년정신의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원내의 유일한 소아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장애), 틱장애, ADHD, 청소년 식이장애와 기분장애 등 다양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3. 완치가 어렵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통찰력을 가지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4. 발달장애는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연구해 발달장애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5. 치료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권유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치료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신제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1. 내분비대사내과에서 내분비대사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주변에서 제가 친절하고 편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만성질환 환자의 치료에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환자가 지치지 않고 의사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4.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습득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최적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내분비대사내과의 특성상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주가 됩니다.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 영구적인 삶의 질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권오 혈액종양내과 교수

1. 혈액종양내과에서 종양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종양분야에서의 10년간의 해온 진료 및 연구 경험과 축적된 충분한 에너지입니다.
3.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4. 한양대학교병원의 종양 분야에서 유능한 관심을 갖기 어려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임상시험 등을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5. 암 치료의 과정, 특히 완치가 어려운 고식적 치료의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혜 소아청소년과 교수

1. 소아청소년과에서 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 회복탄력성이 좋은 점이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중환자와 마주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감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용감하면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고 환자와 만나고 싶습니다.
4.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만 숨을 못 쉬고, 중환자가 되어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 분들과 함께 절망하지 않고 힘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합니다.
5. 치료를 받는 아이, 그 아이의 보호자는 막막한 상황에서 온전히 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 보호자를 다정하게 보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박계영 가정의학과 교수

1. 가정의학과에서 종합적인 건강 관리, 비만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2.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 책임을 갖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의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적으로 접근하고 환자에 맞는 진료를 하겠습니다.
4. 가정의학 진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환자 중심적, 전인적인 접근, 의료의 연속성 등에 힘을 싣고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 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손준혁 소아외과 교수

1. 외과에서 소아외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소아외과에서는 만 18세 이하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외과적 질환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다양한 수술을 담당하는 올라운더 플레이어(All-Round Player)라고 생각합니다.
3. 단순히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4. 질환 특성 상 장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해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긴 치료의 여정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고 보호자 역시 지치지 않도록 상담해주는 카운슬러가 되고 싶습니다.
5.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치료해 잘 퇴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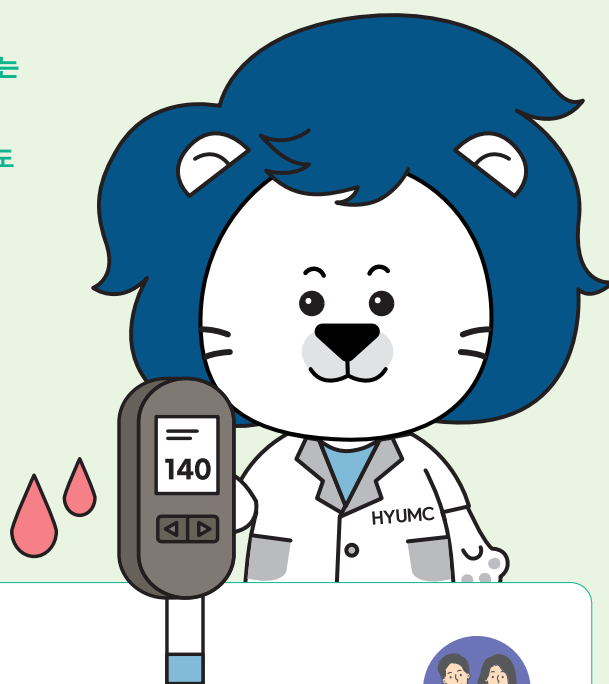


유승진 영상의학과 교수

1. 영상의학과에서 흉부 및 심장영상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환자를 만나온 경험입니다.
3. 환자의 인생에 도움이 되며 기억에 남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4. 의료진 간의 열린 의사소통으로 환자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5.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진심과 신뢰를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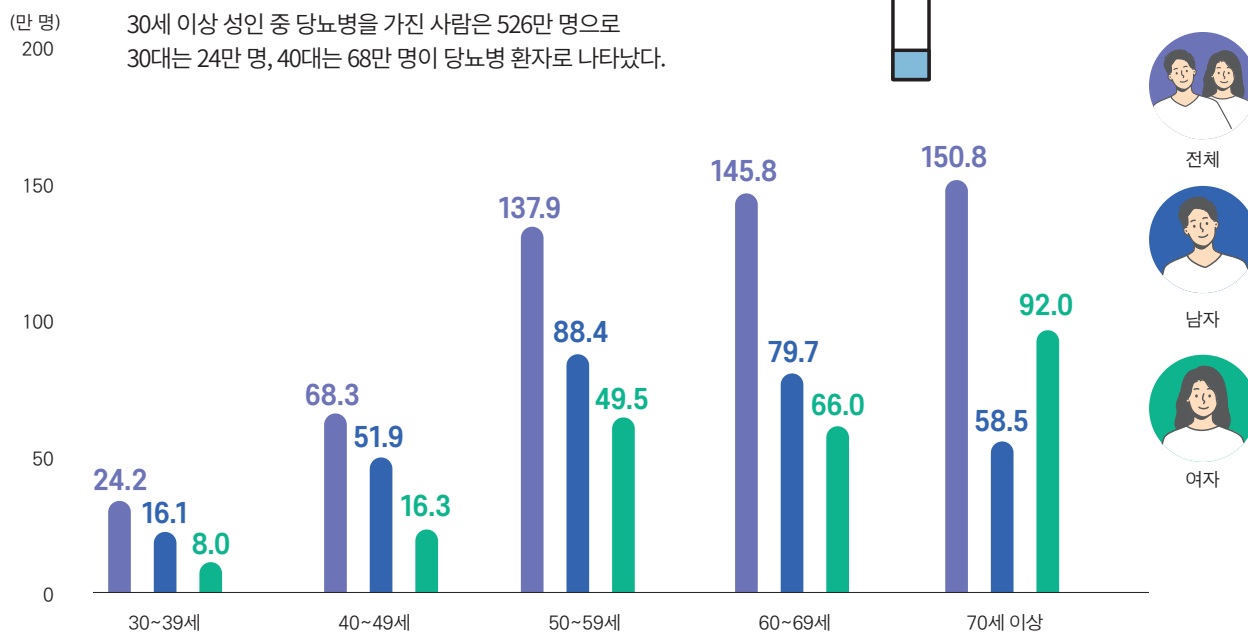
#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당뇨병’의 합병증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당뇨신경병증, 당뇨발, 당뇨망막병증 등 관련 합병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적 관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을 알아본다.



### 당뇨병 인구(2019-2020년 통합)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출처: 대한당뇨병학회(Diabetes Fact Shee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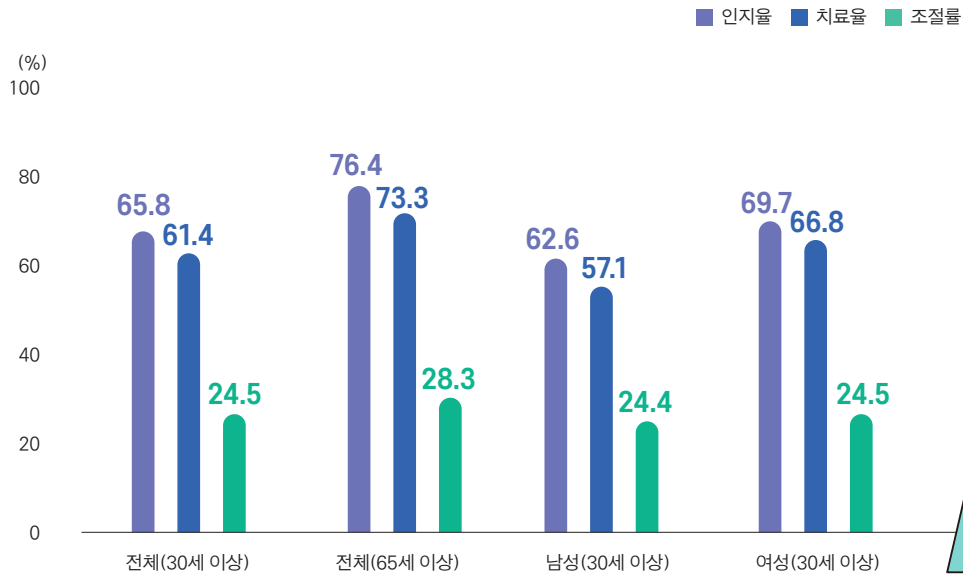


## 당뇨병 관리 수준(2019~2020년 통합)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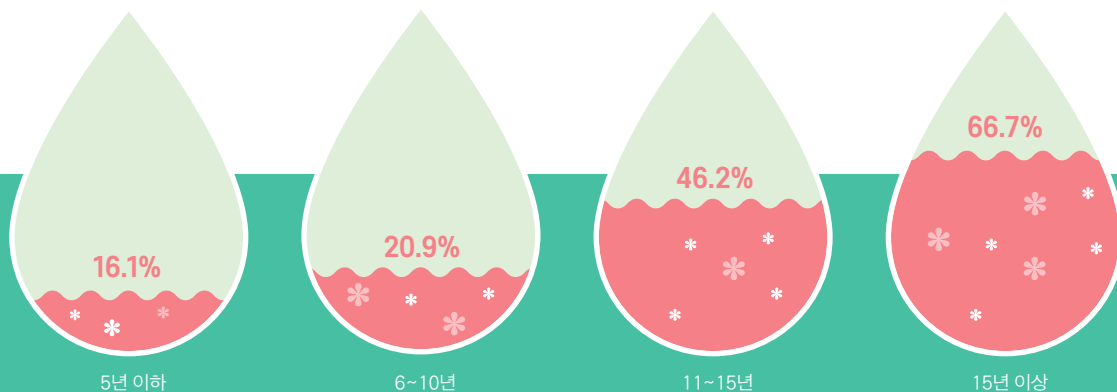
출처: 대한당뇨병학회(Diabetes Fact Sheet 2022)

당뇨병이 있는 30세 이상 성인의 65.8%만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치료를 받는 경우는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났다.



## 당뇨병 유병기간과 망막병증 유병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당뇨병 망막병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 상실을 50~60%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당뇨병 진단 후 증상이 없더라도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에 의한 실명을 예방해야 한다.

# 01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당뇨병'의 합병증

## 오랜 당뇨로 신경손상 '당뇨병 신경병증'

### 가장 대표적인 당뇨병의 만성합병증

#### 당뇨병 합병증 중 가장 흔해

당뇨병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당뇨병 환자 중 혈중 포도당이 높은 고혈당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흔했으나 다양한 당뇨병 약물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당뇨병 합병증이나 감염 등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에는 미세혈관합병증, 대혈관합병증이 있다. 미세혈관합병증에는 당뇨병 눈병증, 당뇨병 신장질환, 당뇨병 신경병증이 있으며 대혈관합병증에는 심장혈관질환, 뇌졸중과 일과성허혈발작, 말초동맥질환이 있다.

가장 흔한 당뇨병 만성합병증은 당뇨병 신경병증이다. 이에는 말초신경병증, 단일신경병증, 근위축증, 자율신경병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형태는 말초신경병증이다.

#### 당뇨병 신경병증 발생 원인

당뇨병 환자에서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은 고혈당이 지속되면 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막히며 대사 이상과 관련된 여러 독성 대사 물질이 축적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 발생한다. 따라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당뇨병을 치료받은 기간이 길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잘 발생된다.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은 보통 발가락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점점 위로 진행하게 되며 양말을 신는 부위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심해지면 손가락 끝에서도 나타난다. 손가락으로부터 점점 위로 진행되어 장갑을 끼는 부위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양측 발에 동시에 나타나며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 당뇨병 신경병증의 다양한 증상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해 저린 느낌 등의 감각 저하나 반대로 바늘로 찌르거나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통증 등 감각 과민을 호소하기도 한다. 주로 밤에 나타나므로 심한 경우 밤에 잘 때 발이 뜨겁고 이불에 닿았을 때 통증 등이 느껴져서 발을 이불 밖으로 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당뇨병 단일신경병증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침범할 수 있다. 외부의 압력이나 조임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목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3뇌신경에 발생할 경우 물체가 겹쳐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발생한다.

당뇨병 근위축증은 일반적으로 한 쪽에만 나타나며 주로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위축하게 된다.

당뇨병 자율신경병증은 심장, 위장관, 방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심장에 당뇨병 자율신경병증이 발생할 경우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기립성 저혈압,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빈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가슴통증이 없는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울증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은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나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급사할 수 있다. 위장관에 당뇨병 자율신경병증이 발생할 경우 변비 소화불량, 오심, 구토,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변비다. 방광에 당뇨병 자율신경병증이 발생할 경우 방광에 소변이 차더라도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생기지 않아서 방광염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다.

### 당뇨병 신경병증의 진단 방법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을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들은 비교적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미시간 신경장애검사법(MNSI, 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설문조사이다. MNSI에는 1. 발 또는 다리에 저린 감이 있습니까? 2. 발 또는 다리에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발에 무엇이 닿을 때 과민하게 느끼니까? 4. 발 또는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납니까? 5. 발 또는 다리에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6. 이불이 피부에 닿을 때 아픔을 느끼니까? 7. 목욕할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8. 발에 까진 상처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9. 의사로부터 '당뇨병 신경병증'이라고 진단된 적이 있습니까? 10. 다리와 발에 마비가 있습니까? 11. 다리나 발의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집니까? 12. 걸을 때 다리가 아릅니까? 13. 걸을 때 발에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까? 14. 발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자주 갈라집니까? 15. 발이나 발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등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4번과 10번 문항은 제외하며 7번과 13번은 '아니오'라고 답했을 때 1점, 그 외 문항은 '예'라고 답했을 때 1점으로 총 13점 중 7점 이상일 경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시사한다. 그 외에 10g 모노필라멘트 검사와 진동 감각 검사, 슬개건 반사 검사, 족·압각 검사, 통각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신경전도검사는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의심되나 전형적인 양상이 아닌 경우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다.

심장에 당뇨병 자율신경병증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심박수 변동 검사, 기립시험 검사를 위장관에 당뇨병 자율신경병증 증상이 있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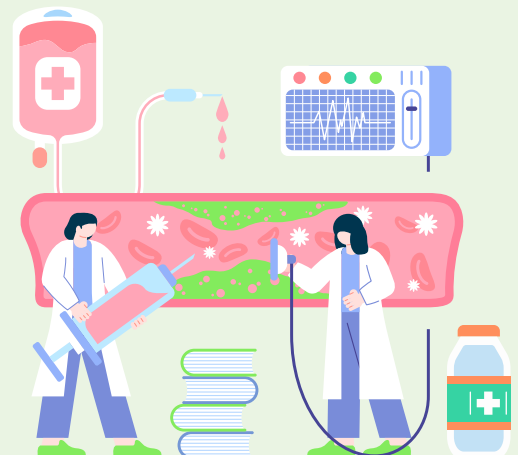
우에는 위 기능 검사, 방광에 당뇨병 자율신경병증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광 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당뇨병 신경병증이 무서운 이유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울증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은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의 경우에는 감각과 운동능력 저하로 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손상으로부터 바른 보호와 대처가 어려워 발에 상처가 쉽게 생길 수 있다. 또한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악화되면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발에 상처가 생겨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발에 상처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올바른 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하지 절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당뇨병은 성인에서 하지 절단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당뇨병 환자가 무서운 합병증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술, 담배와 같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고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 02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당뇨병'의 합병증

## 작은 상처에서 절단까지? 당뇨병의 합병증 '당뇨발'

통증이 약해 방치하기 쉬워 더욱 주의



### 당뇨발의 심각성 인식

당뇨발을 원인으로 처음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의 표정은 환부 상태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덩덤하게 의사의 말을 경청하다 절단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은 발톱을 깎다가 작은 생채기가 났거나 바닥에 떨어진 못을 밟은 적 밖에 없고, 무엇보다 별로 아프지도 않아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당뇨발이다.

당뇨발은 말 그대로 당뇨를 가진 환자의 하지에 궤양 등의 상처가 발생하는 것으로 당뇨환자의 발에 생긴 궤양은 그 기전과 예후가 일반인과 많이 다르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가 통증보다는 상처로부터 나는 피나 진물 등이 양말에 묻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각을 하게 된다. 환자가 기억하는 외상의 기전은 대부분 경미하나 증상의 스펙트럼은 발톱 옆에 작은 고름집이 잡힌 것부터 발 전체로 고름이 퍼져 피부가 괴사되고 힘줄을 타고 상행부로 감염이 진행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 당뇨발의 원인

조절되지 않은 고혈당은 혈관 및 신경세포에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말초혈관병증과 말초신경병증, 여기에 외상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당뇨발이 발생하게 된다.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의 거의 90%에서 발견되는 제일 주요한 위험인자이다. 초기에는 타는 듯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수반하지만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통증, 압력, 온도에 대한 지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발에 작은 상처가 나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상처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이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의 땀 분비가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



당뇨발의 치료는 크게 감염의 조절과 혈류의 확보, 재건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의 조절을 위해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감염이 힘줄이나 근막을 따라 상행부로 진행하지 않도록 초기에 수술적으로 배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서 갈라짐 등이 발생되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취약한 발에 두 번째 요인인 외부 자극이 동반되면서 당뇨발의 발생이 시작되는데 외상이라고 해 꼭 뽀족한 물건에 크게 찔려야만 족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 맞지 않는 신발 때문에 발의 특정 부분이 눌리거나 굳은살이 배긴 부분이 걸으면서 지속적으로 눌리는 경우, 내성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경우 역시 충분히 문제를 일으키는 외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인 말초혈관병증은 궤양의 발생뿐 아니라 치료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말초혈관병증 즉 말초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은 당뇨병자에서 흔하게 동반된다. 상처가 발생하고 여기에 감염이 동반되면 혈액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혈관 협착에 의해 충분한 양의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 상처가 낫지 못하고 감염이 퍼지면서 괴사로 이어지게 된다.

### 당뇨발의 치료 방법

당뇨발의 치료는 크게 감염의 조절과 혈류의 확보, 재건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의 조절을 위해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감염이 힘줄이나 근막을 따라 상행부로 진행하지 않도록 초기에 수술적으로 배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의 원인이 되는 균주에 적합한 항생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당뇨발 환자에서 감염이 촉발된 원인이 혈류 감소에 의한 것인지 혈관 상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혈관 CT나 초음파를 통해 혈류를 감소시킬 정도의 유의미한 협착이 발견되면 혈관중재시술을 통해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상당 부분 괴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감염원의 제거를 위해 이른바 절단술이 불가피하다. 괴사 범위에 따라 절단 레벨(Level)이 결정되겠지만 무릎 밑 절단 이상의 주요 절단술 이후 환자의 5년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보고 이후로 재건술을 이용한 하지의 구제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재건술은 옆구리나 허벅지 등에서 피부 조직을 채취해 결손 부위에 이식을 하는 유리피관술을 주로 이용하는 데 이를 통해 주요절단술을 피하고 다리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이가 5년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당뇨발의 예방 방법

당뇨환자 중 많게는 10% 가까이에서 족부궤양이 발생하고 이중 70% 정도는 1년 안에 호전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5% 정도는 절단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일단 정기적인 내과 진료를 통해 혈당뿐 아니라 혈압 및 고지혈증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또한 흡연은 당뇨의 악화뿐 아니라 혈관병증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연이 중요하다.

환자 자신이 치료팀의 가장 중요한 멤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괴사로 진행되고 나서야 인지를 하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매일 발을 관찰하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 관리법이다.

발등뿐 아니라 발바닥, 발가락 사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물집이나 붉어진 곳, 피땀한 곳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매일 미지근한 물에 발을 씻고 보습을 해 피부가 건조하거나 갈라지지 않게 해 주되 뜨거운 물이나 난로, 전기장판은 화상을 입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발톱 가장자리의 뽀족한 부분은 모나지 않게 잘 다듬어서 옆 발가락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고 내성발톱은 일찍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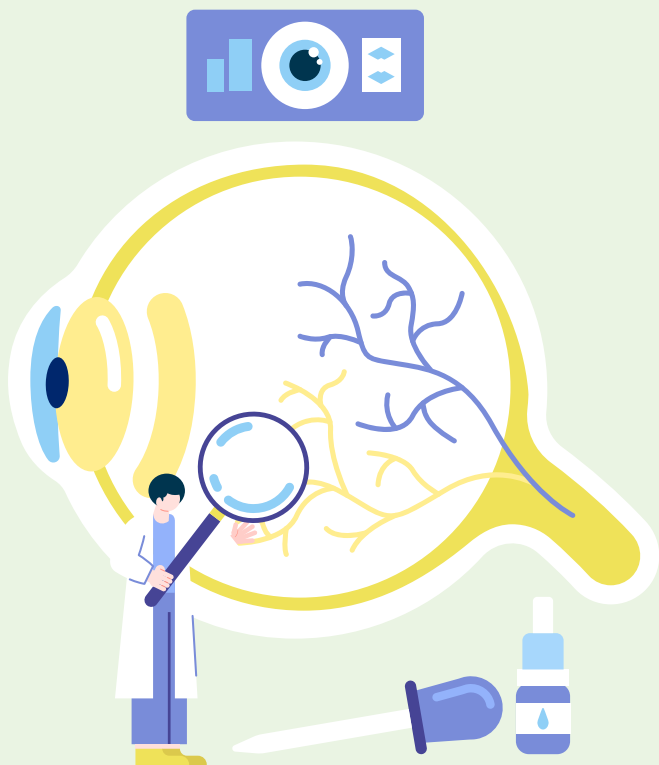
또한 실내에서도 맨발로 다니는 것을 피하고 양말을 신고 폭신한 슬리퍼 등으로 발을 보호하는 것이 좋으며 신발도 너무 꽉 끼지 않게 폭신한 깔개를 깔고 신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작은 상처라도 발견될 시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 03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당뇨병'의 합병증

## 눈앞이 얼룩덜룩 원인은 당뇨? '당뇨망막병증'

시력 보존 위한 첫 걸음,  
망막 검진의 중요성



### 당뇨의 3대 합병증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의 말초혈관 순환장애를 일으켜 발생되며 망막 출혈, 부종 등으로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당뇨의 3대 합병증 중 하나로 불릴 만큼 흔하기 때문에 이 질환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1월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안과 검진을 받지 않았고 30~50대는 30% 중 후반으로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당뇨 유병 기간 길어질수록 발생률 증가

당뇨망막병증은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실명질환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다른 두 질환과 달리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라는 확실한 전신질환의 원인이 있다. 특히 당뇨망막병증은 노동 가능 연령대에서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작게는 한 가정, 크게는 국가적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 질환이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률이 증가한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잘 안될 때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며 고혈압, 고지혈증, 임신, 흡연, 비만 등 전신적 상태가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1형 당뇨의 경우 고혈당 자체가 당뇨망막병증 발생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그러나 2형 당뇨의 경우 고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질병 발생의 주요 위험 인자 중 하나이므로 고혈압 조절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

### '불편한 것이 없는데 당뇨 때문에 안과 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초기 당뇨망막병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증상이 없을 수 있다. 당뇨병 자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뇨망막병증은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실명질환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다른 두 질환과 달리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라는 확실한 전신질환의 원인이 있다. 특히 당뇨망막병증은 노동 가능 연령대에서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작게는 한 가정, 크게는 국가적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 질환이다.

당뇨 진단 이전에 당뇨가 얼마 동안이나 몸에 영향을 줬는지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뇨가 진단된 경우라면 빠른 시간 내에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안과에서는 시력 및 안압, 굴절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시작으로 눈에 산동제를 투여한 뒤 세극등 현미경 검사 및 안저촬영을 한다. 필요할 경우 망막단층촬영과 형광안저촬영을 통해 당뇨망막병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망막단층촬영으로 황반부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형광안저촬영으로는 망막혈류장애, 신생혈관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당뇨망막병증 KEYWORD - 황반부종, 신생혈관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비증식성 혹은 증식성 여부에 대한 소견을 들을 수 있다. 경과를 비증식성에서 증식성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나누는 기준은 망막에 생긴 신생혈관이다. 당뇨로 망막의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되면 혈관내피증식인 자라는 물질이 눈 속에 증가하게 되어 망막 조직에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혈관이 멋대로 자란 혈관이라 망막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쉽게 터져 눈 속 출혈, 망막박리 등을 일으켜 심각한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1).

증식성 환자의 일부에서는 신생혈관녹내장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빠르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실명까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증식과 비증식 단계와 관계없이 망막의 중심부가 붓는 당뇨황반부종(그림2)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당뇨 환자 시력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재발이 흔하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증식성 단계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당뇨망막병증 치료의 목표는 진행의 억제 및 시력 보존에 있다. 증상도 없고 망막에 경도의 변화만 보이는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당뇨 조절을 잘 할 것을 권유한다. 증식성의 경우 레이저 치료나 눈 속 주사 치료로 신생혈관 활동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신생혈관이 터져 눈 속 출혈(유리체 출혈)이 발생했다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하다.

당뇨황반부종은 주로 눈 속 약물 주사치료가 진행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약제가 사용된다. 당뇨황반부종은 자주 재발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눈 속 주사가 필요하며, 약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

#### 조기 발견해 극복하는 것이 중요

당뇨망막병증의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려면 엄격한 혈당 및 혈압 조절 등의 전신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면 당뇨가 잘 조절될 경우 당뇨망막병증 진행 속도가 늦춰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당뇨망막병증은 당 조절이 잘 된다고 해도 진행 속도를 늦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 발견하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당뇨를 앓고 있다면 시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혹은 현재 당 조절이 잘 되고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기 망막 검진을 통해 병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병이 진행되었더라도 망막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시력을 보존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당뇨 환자 분들, 마지막 검진은 언제인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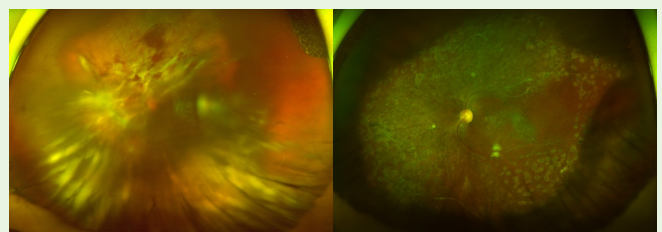


그림1.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합병증. (좌)유리체 출혈 (우)수술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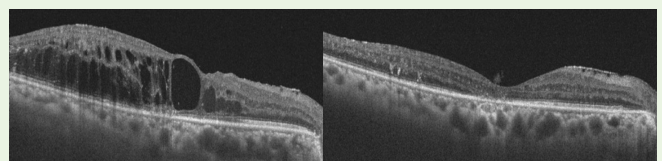


그림2. (좌)망막 중심부가 붓는 당뇨황반부종 (우)주사 치료 후 호전상태.

## 새로운 건강증진센터에서 질병을 조기에 찾고 예방할 수 있도록!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 리뉴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지난해 환경 개선 공사를 끝내고 리뉴얼 오픈했다.

수검자가 효율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선을 재정비하고 대기 공간을 넓히는 한편 분위기까지 산뜻하게 바꾸었다. 수검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보다 정확한 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찾아가봤다.





### **수검자도 만족한 확장과 개선의 효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 로비층 입구로 들어서면 이전보다 탁 트인 접수 및 대기 공간과 마주한다. 채혈실과 복도가 한 눈에 보이고 찾아가기 쉽게 이동 동선이 구성되어 있어 처음 오는 수검자도 어려움이 없다. ‘원래 있던 한정적인 공간을 어떻게 바꿨을까?’라는 궁금증까지 생겼다.

홍수진 건강증진센터장은 “한 번에 많은 수검자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기 공간이 좁아 답답한 느낌이 있고 수검자들도 불편함을 느꼈다”라며 “이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지난 2023년 9월 15일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고 약 한 달 간의 공사 끝에 공간 구성을 바꿔서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국가검진, 특수검진, 종합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및 단체 검진도 이루어진다.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되는 만큼 수검자의 이동 동선과 대기 공간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검진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수검자들이 이곳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기 공간이야말로 그런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켰다. 리뉴얼 후 이곳을 방문한 수검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부분 내부가 더 넓어지고 조명 역시 이전보다 밝아져 공간이 고급스러워졌다는 평가다. 확장과 개선의 효과는 수검자의 만족감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 **이동 동선과 대기 공간을 고려한 결단**

이러한 변화는 내부에 있는 1인용 채뇨 화장실을 없애면서 가능해졌다. 센터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한 넓은 화장실에서 수검자들이 대기 시간 없이 더 쾌적하게 채뇨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홍수진 센터장은 말했다.

“새롭게 생긴 공간을 활용하고 구성을 바꾸면서 이전에 혼잡했던 동선이 제 자리를 찾고 대기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새로 조성한 채혈실과 확장된 대기 공간에는 그림과 액자, 소형 화분을 배치해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수검자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접수대의 숫자와 수납공간을 늘리고 여기저기에 나눠져 있던 검진문서 보관에 필수적인 문서고 공간을 일원화해 직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도 높였다.



### 의무화되어 있는 건강검진의 중요성 인식 필요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유해인자 노출 업종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검진, 개인 혹은 사업장 종합검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검진은 국가검진이다.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검진은 2년마다 1회 진행되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국가검진은 진찰, 상담, 신체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검사 등 다양한 의학적 검사로 진행된다. 특수검진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 알아야 되므로 개인적인 신체가 아닌 사업장에서 먼저 의뢰를 하는 방식이다. 특수검진은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에 따라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다.

국가검진과 특수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장태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검진이나 특수검진 모두 국가적으로 인력 손실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의무화되어 있는 검사만큼 미리미리 챙겨서 건강 관리에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수검자 중심의 검진 시스템에 주력

정확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장비 도입, 공간 확보, 서비스 강화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지닌 숙련된 의료진

이 상주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수검자가 검진을 받기 전 어떠한 검사를 해야 될지 상담도 가능하다. 물론 홈페이지에 검진항목이 소개되어 있지만 개개인이 모두 확인해볼 수는 없는 일.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정업무를 담당하는 윤정은 가정의학과 교수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중대질환이 발견되는 경우 연계해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윤정은 교수는 “수검자가 올바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의 질병력, 가족력 등을 감안해 상담 후 맞춤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검사 후 결과에 따라 꼼꼼한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최다 칭찬카드를 받아서 병원의 친절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수검자의 높은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증진팀을 이끌고 있는 홍성숙 팀장은 수검자가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검자 개개인에게 맞춘 건강검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팀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검사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려 검사를 앞둔 불안감이 줄어들고 검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수검자들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더욱 새로워진 공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수검자 중심의 검진 시스템에 주력하겠다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 수검자의 마음까지 보듬겠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 Mini Interview



**장태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국가검진과 특수검진은 위험성과 효용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의무검사입니다. 앞으로도 수검자들이 편하게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은**  
건강증진센터 교수(가정의학과)

건강검진은 규칙적으로 한 곳에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검자의 건강에 맞춰 필요한 검사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수진**  
건강증진센터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응대할 것이며 경기동북부지역에서 최고의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로서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최현주**  
건강증진센터 교수(소화기내과)

위, 대장 내시경 검사는 수검자들이 특히 무서워하고 불편해 하는 검사입니다. 내시경전담 전문의로서 더 꼼꼼하고 정확하며 안전한 내시경 검사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희**  
건강증진센터 교수(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어 판독과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우수한 장비를 이용하여 수검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국적 코호트에서 라니티딘 사용 및 암 발생



“가장 널리 사용되는 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H2RA)인 라니티딘은 2020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불순물로 인해 철회됐다. 알려진 발암 물질 섭취와 관련된 암 발병의 잠재적 위험은 중요한 역학적 문제이다.”

학술지 『JAMA Network Open(피인용지수: 13.8)』 2023년 9월에 실린  
‘Ranitidine Use and Incident Cancer in a Multinational Cohort’ 중에서

### 발암물질 검출로 판매 중지된 위장약 라니티딘

‘잔탁®’이라는 상품명으로 널리 알려진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은 위 점막의 히스타민2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위산 분비를 줄여 속쓰림 등 위장 증상을 개선하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다양한 소화기질환 치료에 널리 쓰여 왔다. 198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었는데, 2010년대에는 미국에서 연간 1400만 건의 처방이 이뤄졌으며, 2019년에는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이 처방되는 소화기약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쓰인 약이었는데,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형도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이렇게 널리 쓰이던 라니티딘은 2019년 9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여러 제조사의 라니티딘 제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매우 발빠르게 2019년 9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하였다. 2020년 4월에는 미국, 유럽, 호주에서도 판매가 중지됐다.

## 라니티딘 복용과 암 발생 위험 증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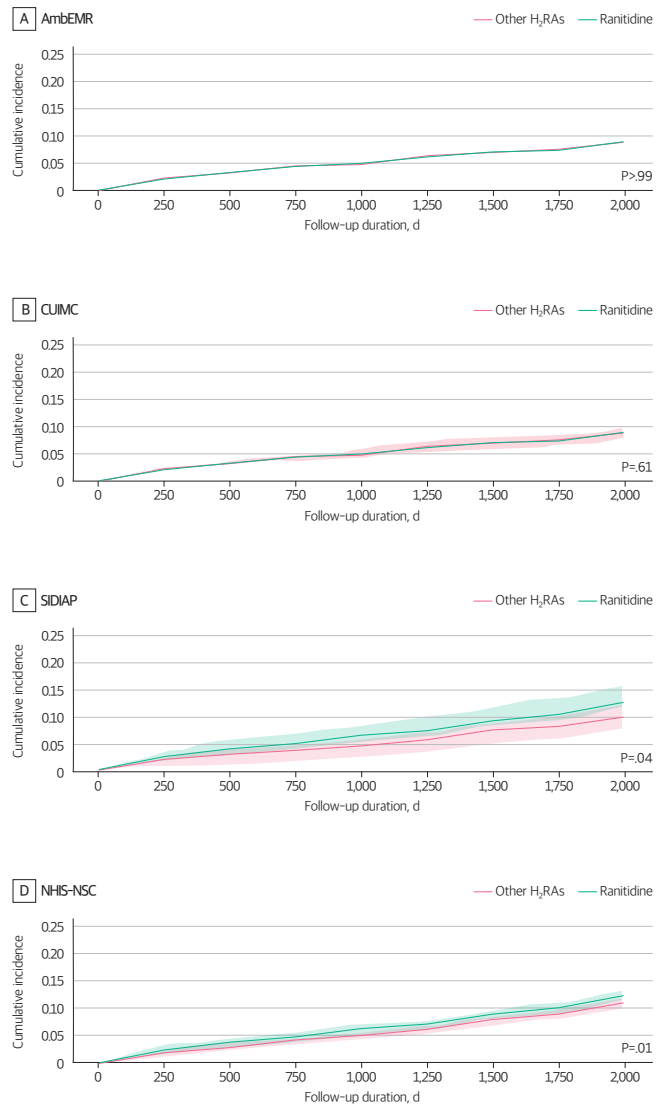
현재 라니티딘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약제이나, 이미 2019년 이전까지 해당 약제에 오랜 기간 노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라니티딘에 의한 암 발생 위험 가능성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라니티딘 복용에 따라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는지 여부는 보건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 만약 라니티딘 복용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면 그동안 장기간 노출되었던 사람들을 조사하여 암 검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초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니티딘과 암 발생 위험 증가와의 관계는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라니티딘이 생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NDMA를 처음부터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생산 후 보관 과정에서 비교적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한해 화학적 구조가 변하여 NDMA가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니티딘 복용자가 모두 NDMA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NDMA는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물이나 식품에도 어느 정도 존재할 수는 있는 물질이기에, 누구나 약간의 NDMA에 노출되면서 살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라니티딘을 복용했다고 하여 비복용자에 비해 앞으로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단정 짓기 어렵다. 라니티딘 복용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규명하기 위해 다국가, 다기관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자료를 비롯하여, 국내 4개 기관 자료와,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대만 자료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라니티딘 복용한 환자가 다른 위산억제제(히스타민2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한 환자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았다. 이는 암종에 따라 나누어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라니티딘 복용이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 암 발생 위험과 연관이 있지 않았고, 다른 주요 암종에서도 라니티딘 복용자와 다른 위산억제제(히스타민2 수용체 차단제) 복용자에서 암 발생률이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라니티딘 복용이 NDMA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NDMA 섭취량이 다소 늘었다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물론, 현재는 라니티딘보다도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위산분비 억제 약물이 많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에 썼던 라니티딘을 다시 사용하자고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까지 오랜 기간 라니티딘을 복용해 왔던 환자에서 암 발생 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암검진 외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JAMA Network Open(피인용지수: 13.8)』에 'Ranitidine Use and Incident Cancer in a Multinational Cohort'라는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Figure 2.



## Remarkable research



## ◀ Ranitidine Use and Incident Cancer in a Multinational Cohort

다국적 코호트에서 라니티딘 사용 및 암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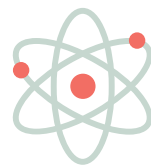
##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진찰이 더욱 중요

### 배우 김우빈과 비인두암

비인두는 해부학적으로 코(비강)의 후방으로 입을 열면 보이는 목젖의 후상방 부위를 말한다. 위로는 두개저의 뼈를 경계로 뇌와 접하고 측방으로는 이관개구부라고 불리는 중이와 연결되는 관의 출구가 있는데 비인두암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암인 비인두암은 배우 김우빈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그가 비인두암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비인두암 4기 진단을 받고 3번의 항암치료와 35번의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그는 2년간의 투병 생활을 끝내고 2019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시상자로 올랐고 건강한 모습으로 2022년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복귀했다.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와 <어쩌다 사장>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우빈. 조금은 생소한 비인두암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 비인두암의 발생원인

비인두암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stein-Barr Virus)의 감염이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중국 남부의 광둥 지역에서는 10만 명당 30명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드물며 2014년 기준 1년에 364명이 발생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연령은 40~60대가 많으나 간혹 10~30대에서 발생되기도 하며 조직학적으로는 95% 이상이 미분화암에 속한다. 드물게 악성림프종이나 침샘기원 종양이 발생되기도 한다.





### 비인두암의 증상

비인두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호흡 시에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외에는 따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인두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지만 종양이 자라면서 코가 막히거나 코피가 나고 전이가 시작되면 목에 림프절이 커진다.

비인두암 발견 시점이 대부분 이 때다. 비인두 측벽의 이관을 막게 되면 이충만감(귀가 먹먹함) 또는 반복적 중이염이 발생해 발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주변의 뇌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외전신경에 장애가 생겨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 삼차신경이 압박되거나 침범을 당해 일어나는 동통이 많이 나타난다. 비인두암은 다른 두경부

암보다도 비교적 원격전이가 많이 일어나며 폐, 뼈, 간에 자주 발생된다. 폐 전이에 의한 흉부 X선(Chest X-ray)사진 상에 나타나는 이상음영, 뼈 전이에 의한 뼈의 통증, 간 전이에 의한 복부 초음파검사에서의 이상음영 등을 통해 원격전이가 비인두암보다 먼저 발견되는 일도 있다.



### 비인두암의 진단

비인두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이 어렵지만 이비인후과 내시경을 통해 관찰할 경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데 대개는 진찰실에서 국소마취 후 시행되며 때로는 경부림프절에만 암이 있어 비인두에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비인두가 원발부위라고 생각될 때는 정상 부위의 조직을 채취하기도 한다.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점막 아래에 암 조직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비인두암이 확인되면 침범 또는 전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CT, MRI를 중심으로 방사선 진단을 실시하며 최근에는 PET-CT가 원격전이를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인두암의 진행정도가 파악이 되면 암의 진전 범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서 병기를 결정하게 된다.



### 비인두암의 치료와 예후

비인두는 수술적으로 종양을 제거하기 어려운 부위이므로 모든 병기에 있어 방사선요법이 주로 사용된다. 경부 림프절 전이의 경우에도 방사선요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항암제를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은 보조치료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방사선과 항암화학요법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비인두암이나 림프절 전이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비인두암 초기의 경우 치료 후의 5년 생존율(치료 후 5년이 지나서 생존해 있는 사람의 비율)은 80%대에 이르지만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30~40%까지 떨어진다.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비인두암 역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예후도 좋다. 따라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의 상담 및 진찰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



Best Partner

글. 최민지 사진. 안용길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지킴이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지난 1998년 문을 연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년 이상

성동구 주민의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신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향상,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  
따뜻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보았다.





## 정신건강사업의 중심 센터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3개 센터 중 하나다. 전담인력 2명으로 시작한 이곳은 현재 (2024년 3월 기준) 김인향 센터장을 포함해 20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성동구보건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호분소 건물 3층과 5층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시작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심리지원, 자살예방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까지 센터의 주 관리사업이 대거 확장되었다. 개소 때부터 역사를 같이 만들어진 일부 직원들 덕분일까? 센터는 성동구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며 주민 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 상담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양한 역할'

센터 3층은 마음관리팀, 5층은 마음이음팀이라는 따뜻한 명칭이 붙어 있다. 마음관리팀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을 진행하며 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례관리나 재활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방문한다. 마음이음팀은 성동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받는다. 그래서 센터의 주 업무는 상담이지만 일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교육을 진행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양대학교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인 김인향 센터장은 “센터에 빛과 환경적인 테라피를 접목한 상담공간인 ‘마음정원’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습니다. 우리 센터는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에 있어서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편견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 및 일반상담도 모두 질환별 검증을 받은 근거에 기반해 상담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최근 이곳 센터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증질환자 관리사업은 재활과 당사자 인권이 포인트로 당사자의 활동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인향 센터장은 “성동구가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저희도 중증정신질환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관계망 확대를 위해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 힘들 땐 고민 말고 찾아와 주길

이곳 센터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오랜 위탁 운영으로 더욱 풍성한 상담



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정신과적인 자문과 사례회의를 지원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정신건강 상담도 전문 의료진이 직접 맡아 신뢰감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실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인지적 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노년층의 인지재활을 위한 활동도 각각 주 1회씩 운영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협조로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 협력으로 월 1회 자살시도자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의 높은 만족감은 이처럼 성동구·한양대학교병원·센터의 긴밀한 협업이 만들어낸 결과다. 김인향 센터장은 정신질환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심각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지막까지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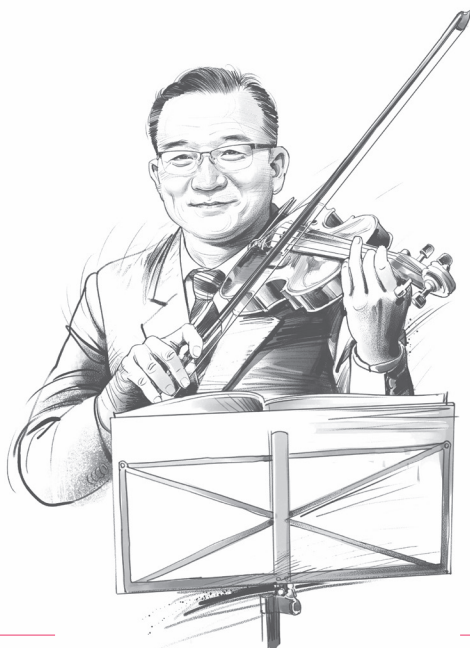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듯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지금부터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 길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러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치**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12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 5층

**문의** 02-2298-1080,  
02-2298-2082(아동)



## 샤를 구노 특유의 섬세함과 귀족적인 품격을 갖춘 걸작



샤를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Charles-François Gounod Opera <Romeo and Juliet>

셰익스피어가 이 희곡을 출판한 것은 1597년이지만 집필 시기는 1595년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원수 가문 사이의 사랑 이야기>와 <수면제로 결혼을 회피하는 이야기>라는 두 편의 이야기가 존재하였는데, 1530년 이탈리아 작가 반델로가 이를 하나로 엮었고, 이 작품이 인기를 끌어 당시 다양한 변안이 등장했다. 셰익스피어는 1562년 발표한 영국 작가 아서 브룩의 운문 번역 <로메우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참고해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대사 안에 현실감을 강조하고, 유머와 아름다운 대사와 함께 각 등장인물 성격의 극적 효과로 많은 칭송을 받아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이 되어 당대부터 햄릿과 함께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수많은 예술가에게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어 극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탄생시켜 왔다. 벨리니, 베를리오즈, 차이콥스키, 프로코피예프를 비롯하여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 <West Side Story> 역시 이를 각색한 것이다. 1839년 구노는 파리에서 베를리오즈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그 후 로마에 유학할 당시 이탈리아 펠리체 로마니의 대본을 입수해 작품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어에 익숙하지 않아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고 그 후 세월이 흘러 1867년 빅토르 위고가 이 희곡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을 읽고 다시 대본가에 의뢰하여 오페라를 작곡하게 된다. 이 오페라는 구노 특유의 섬세함과 귀족적인 품격과 감동적인 비장미까지 함께 갖춘 걸작이다. 또한 특이한 점은 원작

과는 달리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로미오가 약을 막 마셨을 때, 잠든 상태에서 벗어난 줄리엣이 깨어나 두 연인이 잠깐 해후한다는 점이다. 이때 마지막 사랑의 2중창을 부르고, 독이 퍼진 로미오가 죽자 줄리엣은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고 막이 내린다. 이 작품은 초연 후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14년간 391회나 상연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프롤로그** 서곡과 함께 몬테규와 카플렛가의 싸움 속에 젊은 연인의 숙명적 비운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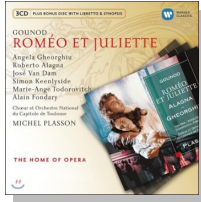
**제1막 카플렛가의 무도회장** 줄리엣의 생일 축하 무도회장에 흥겨운 음악과 함께 가면을 쓴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다. 줄리엣의 사촌 오빠 티발트가 줄리엣에게 칭찬한 파리스를 대동하고 나타난다. 카플렛이 딸 줄리엣과 함께 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딸의 앞날을 축복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몬테규가의 아들 로미오가 친구들과 함께 등장한다. 그중 친구 머큐시오가 이 사람들과 대결하자는데 로미오가 만류하며 줄리엣의 아름다움에 빠져 아리아 '꿈의 여왕'을 부른다. 줄리엣의 유모는 신랑감인 파리스를 칭찬하지만, 줄리엣은 못 들은 척하며 '나를 황홀하게 하는 꿈속에 살고파'라는 아리에타를 부른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로미오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자, 줄리엣 또한 호감을 표시하며 2중창을 부른다. 이때 티발트가 나타나 가면을 쓴 로미오의 목소리를 알아내고 복수할 것을 다짐하고 나간다. 첫눈에 사랑을 느낀 줄리엣은 '우리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음의 무덤이 결혼



##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 클래식501>이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 들을 만한 ALBUM



로베르토 알라냐(로미오),  
안젤라 게오르규(줄리엣),  
미셸 플라송(지휘),  
국립 카피톨레 드 툴루즈 오페라(EMI, 1998)



안드레아 보첼리(로미오),  
마이테 아베롤라(줄리엣),  
파비오 루이지(지휘),  
카를로 펠리체 디 제노아 극장(Decca, 2012)



로베르토 알라냐(로미오),  
레온티나 바두바(줄리엣),  
찰스 마케라스(지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Pioneer Classics DVD, 2006)

의 침대가 될 것이다'라며 노래한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모두 피로연으로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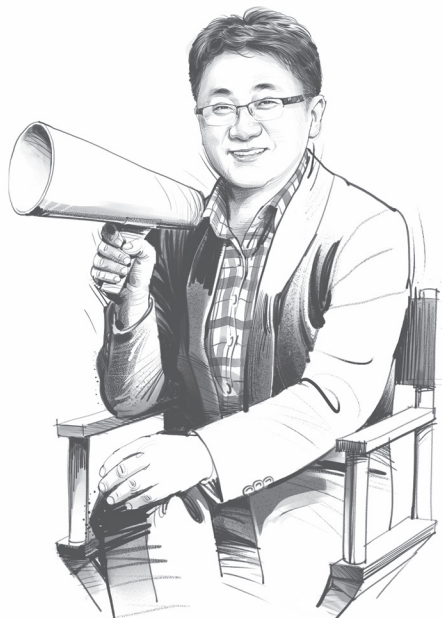
**제2막 제1장 줄리엣 방 밖** 달빛 고요한 정원 옆으로 줄리엣 방이 보인다. 여기에 로미오가 나타나 '밤이여, 나를 잘 보호해 주오'라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머큐시오가 로미오를 찾는다. 로미오는 줄리엣의 높은 창문을 올라다보며 '태양아, 솟아라'라는 아리아를 부른다. 마침내 줄리엣이 나타나 원수의 이름을 버리지 못하겠거든 돌아가라고 하지만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 이때 하인들이 나타나 몬테규 사람들이 보인다고 찾아다닌다. 유모는 줄리엣에게 늦었으니 들어가라며 사라진다. 다시 로미오가 나와 서로 사랑을 나누며 헤어진다. **제2장 로렌스 신부의 지하실**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에게 고민을 묻자, 그는 줄리엣의 이름을 낸다. 이때 유모와 함께 온 줄리엣을 본 로미오는 자기들의 결혼식을 부탁한다. 로렌스 신부는 이들의 결혼이 두 집안의 오랜 싸움을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여 식을 거행한다. **제3장 카플렛가 집 앞** 하인 스테파노가 카플렛 하인 그레고리오와 결투를 벌인다. 이때 머큐시오가 나타나서 남자답게 싸우라고 그레고리오에게 꾸짖자, 줄리엣의 사촌오빠 티발트가 나타나 엉뚱하게도 티발트와 머큐시오에게로 싸움으로 연결되어 불행하게도 머큐시오가 티발트에게 살해된다. 뒤이어 나타난 로미오는 분개하여 티발트를 찌른다. 이때 카플렛이 뛰어들자, 그에게 복수를 부탁하며 숨진다. 살인자의 낙인이 찍힌 로미오

는 영주로부터 국외 추방 명령을 받고, 양가의 화해를 명령받지만, 카플렛의 사람들은 원수 갚을 것을 굳게 다짐한다.

**제3막 제1장 줄리엣의 방** 로미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줄리엣을 찾아온다. 그들은 처음 만난 날을 회상하며 사랑의 이증장을 부르며 서로 포옹한 채 새벽까지 사랑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 후, 헤어지기 싫은 피로움을 안고 이별한다. 얼마 후 아버지가 찾아와 줄리엣에게 파리스 백작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나간다. 그리하여 줄리엣은 아버지와 같이 왔던 신부에게 도와 달라고 애원하자, 신부는 '죽음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으며, 잠자는 약을 먹여 죽은 것 같이 하는 동안 로미오를 데려와 줄 테니 깨어나는 대로 곧 돌아 도망치라고 이르러 나간다. 다시 들어온 아버지가 파리스 백작과 기쁜 결합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할 때, 줄리엣은 약기운으로 혼몽해지며 쓰러진다. **제2장 줄리엣의 무덤** 로렌스 신부의 전갈을 받고 뛰어온 로미오는 잠자는 줄리엣이 정말로 죽은 것으로 알고 가지고 온 독약을 마신다. 몽롱해지는 로미오의 눈앞에 다시 깨어나는 줄리엣. 로미오를 본 줄리엣이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영원한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로미오와 지난날 주고받던 '밤피꼬리'라는 대화 한 토막을 되풀이하던 줄리엣은 운명하는 그에게 마지막 키스하고, 마실 약이 없자 품었던 칼로 자결하며 신에게 용서를 비는 대목에서 막이 내린다. 🎬

## 라쇼몽 효과에 대하여

내 인생의 영화 95



작가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문자가 발명된 후 수많은 일들이 역사가들에 의해 적히고 후세에 전해지며 역사란 쉴 새 없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는 결정론적이며 낙관적인 스탠스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 말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린다.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역사가들은 루비콘 강을 지나간 수백만 명의 동시대인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역사적인 사실의 총체라는 것은 결국 그 당시의 주류에 의해 읽히고 해석되는, 취사선택의 여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가치관 내지는 역사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각색된 '입맛에 맞는 사실(史實)'의 편린에 다름 아니다.

과거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베타테스트를 받고 하자가 없도록 출품되어야 하는 전자기기와도 유사하다. 역사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틀어 완벽하고 흠결 없는 하나의 주의(-ism)이자 제도이며 재구성하려면 불필요한 부위의 다이어트도 필요하고 반대로 약해진 부분을 벌크업 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교가 지배하던 중세를 뒤집었던 왕정체제 역시 시민의 힘에 의해 무너졌다. 벨 에포크(Belle Epoch, 아름다운 시절)라고 불리던 19세기 말의 오스트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막을 내렸고, 이후 세계는 경제 혹은 돈이란 유일 무이한 시대정신(Zeitgeist) 아래 재편성되었다. 20세기 이후의 세계관은 결국 잘 먹고 잘 살기를 향한 절대권력을 지닌 자본주의(Capitalism)로의 몸부림일 뿐이었다.

우리는 유례없는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일구어 낸 한국식 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를 표방한 국가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례없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독특하면서 세상 어디에도 비슷한 점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내로남불의 아전인수격인 민주주의이자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를 잉태하게 된 어쩔 수 없는 변명이기도 하다. 마이즘(Me-ism)은 이들 모두의 기본 개념으로 설명된다. 내가 없이는 세계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으니 어찌 보면 맞는 말이다.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작동도 되지 않던 M1 소총으로 군사교육을 받으며 태극기가 내릴 무렵 하던 일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만 했던 전체주의 하에서 교육받았던 내 세대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 개인주의가 필요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공정과 가치에 대해 배우고 변화에 익숙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미래보다는 현재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익숙한 MZ세대는 남들이 가지 않거나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시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 반응을 하면서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내게 있어 의사로서의 역사는 지긋지긋하게 반복된다. 조금의 변화도 없이 말이다. 2년차 전임의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 당직을 서며 드레싱과 콧줄, 소변줄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만 했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몇 개월이 그랬고 수련교육부장으로 전공의들의 파업을 목도하면서도 대의명분을 알기에 떡을 치면서도 묵묵히 동의했던 2020년 의대증원 반대 당시가 그랬다. 2024년 현재 너무도 익숙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에서의 낯발은 더 올랐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2020년과는 달리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에서도 철수한 젊은 의사들을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날이 갈수록

##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사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용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록 허덕여하는 남아있는 교수, 전문의들에 대한 연민과 애처로움, 이러다가 병원이 헤어날 수 없는 구렁이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은 속 좁은 병원보직자의 어쩔 수 없는 심정이기도 하다. 지금의 사태는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석이 빚은, 강대강의 충돌이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을 라쇼몽(羅生門, Rashomon) 효과라고 한다. 영화적으로는 모자이크식이거나 여러 인물이 나오는 경우 다양한 인물이 자신의 시점에서 사건을 보여주거나 나중에 사건을 회상하면서 진실에 접근하는 서술상의 트릭기법을 말한다. 사회적 용어로는 관계자들이 객관적 현상을 주관적으로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기심과 탐욕이 개입된 고의적인 경우이거나 인간 기억의 주관성이 지닌 한계점 때문에 비롯된 경우 일수도 있다. 경영학에서도 사업의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분석을 내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마다 생각과 경험이 다른 만큼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지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실패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거나 똑같은 사건이라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로 해석이 달라지면서 본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일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羅生門)>(1950)이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가의 단편소설 '뒤편속'에서 비롯되었다. 전란과 기근, 장마, 산불로 사람의 목숨이 하찮아 보이던 일본의 헤이안 시대, 억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라쇼몽의 처마 밑에서 나무꾼과 스님이 '모르겠어. 아무래도 모르겠어'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잠시 비를 피해 그 곳에 들른 한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궁금해하는데 그들은 이 남자를 상대로 최근 그 마을에 있었던 기묘한 사건을 들려준다. 영화 <라쇼몽>은 한 사무라이의 죽음을 두고 이 죽음을 둘러싼 네 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사무라이를 죽인 산적, 사무라이의 아내, 죽음을 당한 사무라이(영매사의 몸에 빙의해 진술), 그리고 이들을 목격한 나무꾼은 사무라이의 죽음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한다.

산적은 말한다. 보물을 숨겨뒀다고 속여 사무라이를 데려와 포박한 후 그의 앞에서 아내를 겁탈했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살아남는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여인의 유혹에 정당한 결투를 해 사무라이를 죽였다고 아

내는 능욕을 당한 후 남편의 경멸에 찬 눈빛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며 사무라이에게 단도를 내밀었지만 결국 이성을 잃고 실신한 후 깨어보니 단도가 남편의 가슴에 있었다고. 영매사의 몸에 빙의한 사무라이는 아내가 그녀를 능욕한 산적에게 추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치욕감에 자결했다고 말한다. 사건의 최초 목격자인 나무꾼은 산적이 여자를 겁탈한 후 자신의 아내가 되어 달라고 애원하고, 그녀는 자신의 단도로 사무라이를 풀어주고, 산적은 그녀의 말을 '둘 중 싸워 이긴 쪽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알아듣고 싸우려 하지만 사무라이는 '이런 여자 때문에 목숨을 걸기는 싫다'라며 아내를 버리고 자결을 종용한다. 그러자 산적 역시 생각을 바꿔 여자를 버리고 가버리려 하는데, 아내는 사무라이와 산적을 모두 비난하고 이간질하자 둘은 싸움을 시작하고 사무라이는 산적의 칼에 찔려 죽었다고 말한다.

영화는 인간의 심층적인 심리를 기존의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본래 가지고 있는 욕망과 공명심, 이런 힘들의 과시가 부딪히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조명했다. 그래서 산적은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을, 사무라이의 부인은 동양적 정숙미에 숨겨진 추한 욕망을, 그리고 과대포장 속에 숨겨진 사무라이의 무기력함과 변명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증언한 나무꾼 역시 진주가 박힌 단도를 훔친 것으로 드러나 그의 말 역시 믿을 수가 없게 된다. 현상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합리화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기억의 한계점 때문이 아닌 사실의 왜곡과 미화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인간'답지 못하다. 비가 멈추고 아이를 안고 가려 하는 나무꾼에게 승려는 비난하지만 그는 키우는 아이가 여섯이나 하나 더 늘어난다고 달라질 일도 없다고 말한다.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간다고 말하는 듯하다. 솔직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까? 아니면 누군가는 체념하고 상대방에 따라가게 될까? 대화를 통한 물이해가 사라지게 되기 전까지는 명정한 사건의 반복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미화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나도 자서전 비슷한 것을 쓰고 있지만 과연 이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썼을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저서 『자서전 비슷한 것』 중에서 📖



#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캣 아티스트가 된 루이스 웨인



루이스 윌리엄 웨인과

유방암 Breast Cancer

영국 출신의 화가 루이스 윌리엄 웨인(이하 루이스 웨인)의 작품에는 꼭 고양이와 등장한다. 일명 고양이 화가로 유명한 그의 작품 속 고양이는 의인화되어 있으며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현해 보는 이를 즐겁게 만든다. 루이스 웨인이 고양이에 몰두한 이유는 유방암으로 사망한 아내가 기르던 고양이 피터 때문이었다. 아픈 아내를 위해 피터를 자주 그렸으며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에 의인화된 고양이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유방암'에 대해 알아본다.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루이스 웨인은 주간으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의 삽화가로 활동하던 중 고양이 피터를 그리면서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루이스 웨인은 당시 투병 중인 아내에게 반려묘 피터를 직접 그려 보여주면서 위로했다고 알려져 있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유방암의 예후가 좋지만 예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아내의 권유로 신문과 잡지사에 그림을 보내면서 이 고양이 그림은 일명 '루이스 웨인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에는 쥐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굉장히 많았는데 루이스 웨인의 그림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와 맞물리며 미국에서까지 캣팬시(Cat Fancy, 고양이를 기르는 취미를 이르는 용어) 열풍을 일으켰다. 또한 유명 일간지에서도 그의 그림을 앞다퉈 싣는 등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루이스 웨인은 영국에 창설된 국제 캣클럽의 초대 회장으로서까지 추대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영국의 모든 가정에는 고양이 그림이 없는 집이 없었다고 알려질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루이스 웨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많은 고양이 작품을 남겼다. 투병 중인 아내에게 건넸던 위로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향한 위로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글. 차치환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많은 분들이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나'라는 원망과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 옵션이 다양하고 예후가 좋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유방암은 크게 침윤암과 제자리암으로 나뉜다. 침윤암은 유관을 뚫고 나가 림프절을 비롯한 다른 장기로 원격전이 하는 공격적인 특성이 있고 제자리암(상피내암)은 유관을 뚫지 않고 관을 따라 퍼지는 특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 병기에 따라 항암, 표적치료 등을 포함한 전신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과거 유방암은 치료법이 많이 없어 사망에까지 이르렀지만 요즘에는 치료법의 발전과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해 치료가 가능하다. 유방암은 생물학적 특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성호르몬 수용체(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및 표피성장인자 수용체(HER2) 발현유무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예후와 치료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중 가장 흔한 유형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인 내강형(Luminal Subtype)으로 예후가 가장 좋다. 가족력이나 고위험병변(High Risk Lesion)을 동반한 경우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게 된다. 고위험병변은 유관의 증식성 질환이나 비정형 세포 등이 조직검사에서 진단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 다른 위험인자로 는 에스트로겐 노출, 과도한 음주와 흡연, 미란 등을 들 수 있다. 10년 이상 흡연한 여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0%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진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에게 2년에 1번 유방촬영술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방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30대부터 적극적으로 유방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 환자 비율이 서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방암의 생물학적 특징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젊은 연령층의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적극적인 유방 검진도 이유가 된다. 아시아 여성의 상당수는 치밀유방으로 유방 촬영술의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 건강검진 시 유방초음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멍울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이다. 이외에 지속적인 혈성 유두 분비물이나 피부의 함몰을 비롯한 변화, 겨드랑이의 불편감, 만져지는 종괴 등도 유방암을 시사하는 증상이다. 유방암의 수술 범위는 의심스러운 병변의 면적에 따라서 부분절제

와 전절제로 나뉘며 겨드랑이 감시림프절 생검술과 광창술로 나뉜다. 부분절제를 한 경우 반드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전절제를 했다면 병기에 따라 방사선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약물치료는 호르몬 수용체 유무와 HER2 표적인자의 발현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는 대개 수술 후 최소 5년간 항호르몬제를 복용한다. HER2 표적 양성인 경우에는 트라스투주맙이나 페루주맙 등의 표적치료제를 수술 전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항암치료 여부는 내강형(Luminal Subtype)의 경우 대개 다중유전자 검사(Multigene Assay)를 통해 결정되며 HER2 양성인 경우 암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된다. 호르몬 수용체와 HER2 표적인자가 모두 음성인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라면 대개 항암치료가 필요하고 최근에는 면역항암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들 수 있다. 항암치료의 경우 구토, 탈모, 호중구감소증과 같은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항암제가 전신의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HER2에 대한 표적치료제의 경우 심장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항호르몬제는 근골격계 통증이나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 장기간 꾸준히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방암은 수술 후 완치의 개념이 없다. 다른 암은 5년이 지나 재발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내리지만 내강형 유방암은 수술 후 5~10년 사이에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 후 10년까지 주기적으로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다. 다른 장기에 원격전이를 동반한 4기 환자 혹은 진행성 유방암의 경우 예후가 상당히 좋지 못해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유방암을 진단받고 절망감에 휩싸인다.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나'라는 원망과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 옵션이 다양하고 예후가 좋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조기 유방암은 수술이 간단하고 항암 치료기간도 짧아 일상 생활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중해 식단을 추천한다. 많은 연구에서 과일, 채소, 견과류, 곡물 위주의 지중해 식단이 유방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운을 내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



# 가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에 감사하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피부과 서현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을 앓아 자포자기했다는 박지성 님은 서현민 교수를 만나 가려움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는 남들처럼 평범한 20대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준 서현민 교수가 삶의 구원자라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사에 서현민 교수는 '치료가 잘 된 것은 모두 박지성 님의 성실함 덕분'이라며 그의 앞날을 응원했다.





내 삶을 구원해준 서현민 교수님께



교수님을 만나 제가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토피피부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권유로 한방 치료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어 안 다녀 본 병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인연을 맺기 시작해 올해로 7년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이전에는 약한 자극에도 진물이 나고 추운 겨울에는 건조함이 극도로 심해져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약 부작용이 심해 2년간 입의로 치료를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현민 교수님의 진료를 받으면서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교수님께 진료를 받게 된 것이 '하늘의 도움'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산정특례자로 지정되면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주사제 처방을 받게 되었을 때 교수님께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주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주사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전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주사제 처방으로 피부도 좋아지고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기에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큼니다. 아토피피부염을 앓는 환자에게 구세주와 같은 서현민 교수님!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겨울에 니트를 입거나 먹고 싶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남들처럼 20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만난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일생 일대의 행운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박지성 드림**

앞으로 더 건강해질 일만 남은 박지성님께



지금처럼 성실하게 치료받으면  
분명히 완치될 거예요!

박지성님은 아토피피부염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지난 2017년 우리 병원에 처음 내원했고 제가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은 3년 후인 2020년부터였습니다. 아토피피부염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지만 개인의 면역이나 환경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어 개인에게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고 치료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재발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는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수는 생후 2년까지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아토피피부염 환자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아토피피부염을 겪었다 해도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아토피피부염은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질환입니다. 보습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자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박지성님은 이런 제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외래를 올 때마다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꼭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풀어 나가고 지켜야 될 것들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이 예뻐서 더 마음이 가는 환자였습니다. 마침 중증 아토피 신약 주사제가 개발이 되면서 박지성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통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80회를 진행했습니다. 박지성님! 지금처럼 성실하게 치료를 받는다면 분명히 완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치료를 받는 모습만 봐도 어떤 일이든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치료를 잘 받으며 건강 유지에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

**서현민 드림**

##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23년 12월 ~ 2024년 1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재호 교수**  
귀가 보내는 위험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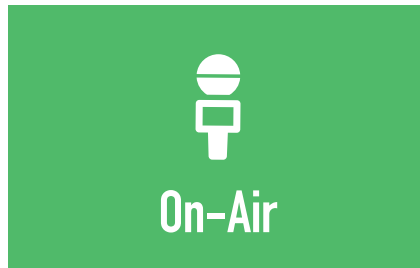
**TV조선 명의보감 하태경·박정환·박계영 교수**  
비만



**SBS 모닝와이드 최지윤 교수**  
하지정맥류



**SBS 모닝와이드 김용성 교수**  
공복 커피는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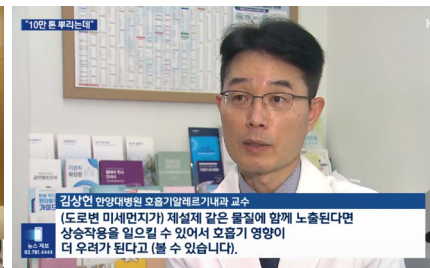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황규태 교수**  
고관절 골절



**SBS 모닝와이드 최해원 교수**  
콧물 풀지 말고 들어켜라



**EBS 귀하신 몸 이항락 교수**  
역류성 식도염



**KBS 뉴스 김상현 교수**  
호흡기 건강

### 한양대학교병원

**노성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MBC [오은영 리포트]/ 12월 4일/ 알콜 지옥 2회/ 1월 15일/ 알콜 지옥 7회 **정재호 이비인후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월 5일/ 귀가 보내는 위험신호/ KBS [뉴스]/ 1월 25일/ 유튜브 의료 콘텐츠 홍수... "검증 안 된 정보 범람" **김유정 안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12월 5일/ 안구건조증 **송승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12월 7일/ 다한증 **김우현 심장내과 교수** TV조선 [신의 한 수]/ 12월 14일/ 침묵의 살인자 심혈관질환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EBS [귀하신 몸]/ 12월 16일/ 국민병 역류성 식도염 **최지윤 외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2월 20일/ 겨울철 난방이 하지정맥류 유발? **조정기 비뇨의학과 교수** YTN [메디컬인사이트]/ 12월 22일/ 전립선비대증 이해와 치료 **이승훈 영상의학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1월 1일/ MRI, CT 영상 **박성실 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1월 8일/ 대장암 **최해원 이비인후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월 10일/ 콧물 풀지 말고 들어켜라? **김진수 응급의학과 교수** MBN [뉴스]/ 1월 12일/ 설사에 구토까지 '노로바이러스' 공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월 18일/ 노로바이러스 환자 5배 급증, 감염 경로는? **정규환 비뇨의학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1월 13일/ 요로결석 **황규태 정형외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월 16일/ 고관절 골절 **차치환 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1월 18일/ 유방암 수술 후 관리

**김용성 신경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월 24일/ 공복에 커피는 금물? **박진화 소화기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1월 24일/ 대장내시경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 1월 27일/ 겨울마다 10만 톤씩 뿌리는데... 저감 대책은?/ **최성훈 정형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1월 30일/ 경추질환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교수** MBN/ YTN/ 한국경제TV/ TV조선/ 12월 7일/ "휴대전화 하루 4시간 이상 청소년, 정신건강·약물 위험 높다" **강보승 응급의학과 교수**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12월 22일/ 연말 술자리에 뒤따르는 '숙취' 해소법은?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월 10일/ 질병을 부르는 중아리/ 근육펌프 종아리를 지켜라/ 1월 23일/ 근감소증 **최호진 신경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월 22일/ 치매와 인지장애/ 1월 26일/ 디스크와 척추협착증

### 한양대학교국제병원

**박계영 종합검진센터 교수** TV조선 [명의보감]/ 12월 8일/ 비만/ SBS [모닝와이드]/ 1월 10일/ 콧물 풀지말고 들어켜라?/ 1월 24일/ 공복에 커피는 금물?



2024년 1월 23일(화)

2024년 1월 27일(토)

국민일보

## 수술 후 배꼽 옆에 웬 덩어리가-“로봇으로 복벽 재건 권합니다”

**Q&A** 궁금하다! 이질병 **최정호** 원장

한스 추크 등 과학자들은 줄기세포는 30대 직장인 한도로는 2년 전배출 부위에 생기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세포는 부위에 점점 커지고 북동쪽으로 중심까지 갔는데, 급히 젖은 병원에서 '작게 만들' 것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후 별다른 증상 없이 자라다 최근 수술 부위가 다시 불룩하게 튀어 나왔고 일종의 재발했다는 의사의 말에 당혹스러웠다.

[illegible]

## NEWS

東亞日報  
 암 세 차례 전이... 모두 극복하고 '완치'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한 것은 2012년경이다. 변비는 심해졌다. 얼굴도 살췌 부었다. 흉과 끈었다. 체중은 7kg이 빠졌다. 피부미용 스킨을 운영하는 홍은희 씨(44)의 무명 생활은 이렇게 시작했다.



남 소독제를 손질하는 것은 마치 사탕을 자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0일 한림대 연구진들은 이 소독제가 10만 배를 희석해도 100% 살균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림대 연구진들은 이 소독제를 100배로 희석해도 100% 살균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림대 연구진들은 이 소독제를 100배로 희석해도 100% 살균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 News Paper

2024년 1월 27일(토)

2024년 1월 30일(화)

**The JoongAng**  
다친 적 없는데 허리 통증, 젊다고 방치하면

본선택 기사 kwon\_sunrik@poongang.co.kr

중작북추염은 척추와 엉덩이뼈가 만나는 부위에 위치한 천장 관절에 생기면

직접 연금으로 하루 마다가 대나무처럼  
일조도 굳는 자기면어질않아도. 목영관  
아래쪽도 다양한 부위 하중 분산 동공  
아래쪽이 굽어졌어 굳는 감각이 특출한  
감각적추염은 유복 40세 이하 젊은 남성  
에서 발병률이 높다. 갱년대 감자피도,  
레비타이어UK도 감각적추염으로 활동  
을 중단한다. 감각적추염은 증상이 일시  
적하고 몸을 움직이면 땀한 대다 첫  
병 사후에 20대 후반으로 옮겨 이상 정  
후를 간파하기 쉽다. 청춘을 공격하는  
감각적추염에 대해 일어났다.

젊은 나이임에도 하체 질환 발생도 높아  
관절척추염은 40세 이하 젊은 남성에서  
주로 발병하는 전염성 염증 질환이다.  
관절척추염도 초기 증상만 간헐적 열  
이와 허리 통증이다. 근육통, 허리디스크  
등 다른 근육격계 질환과 감별이 어려  
워 병원 외 병원을 떠도는 진단 병력

[illegible]

대 이회 남상에게 주도 발명  
자 75% 첫 장상은 영정승요용  
필요 없으면 파타나과가아  
온한 이회차로에 운동도 필수

다. 인체의 조직, 세포는  
인 JAN 악재에 동  
TNF-알파와 악  
재서서 건강하  
금에이 작용을  
능해한다. 흡연  
수는 "다양한 표  
표지를 활용한 차  
요로 공격적으  
효과적으로 막  
했다. 유럽 등지  
를을 예방하기  
없는 상태이  
물질을 시도  
감지후원은 3-6  
연구결과에 따라

보통이라면 교회 부흥을 고  
민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처주 변형의  
영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찬양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먹는 마음을  
가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100

7

제1, 제2호에 따라 다양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역점과제에 따라 달라지는 '역점과제'와 'M2M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정보(에너지, 제조, 의료, 운송, 농업 등)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업별 정보(에너지, 제조, 의료, 운송, 농업 등)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업별 정보(에너지, 제조, 의료, 운송, 농업 등)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남의 2배에 이르다. 같은 기간 30대 청년도 7.7% 늘어 29~30대청년층과 차이가 없다. 농촌 단골 행사인 뽕차는 22.6%, 50대는 6.9% 늘었다.

승용차 품질대별을 살펴보니 시내와 고속도로 주행에는 통행이 술술 끊어지는 ‘3개 바퀴’는 통행이 술술 끊어지지 않고 매번 40~50대 남성의 대표 징표이었지만, 최근 20~30대 젊은 층은 1.4%, 30대 남성은 8.4% 늘었다.

[illegible]

수 있다'고 경고  
 '은 원'이란 물  
 요산의 용에 피다  
 . 요산은 신장이나  
 지지만 볼선이 많  
 해사 (수요)에 의해

고기술에 든 요산 혈액에  
 관통신장 등에 모이던 염  
 4년 새 20대 49%, 30대 27%  
 '통풍 달' 40%보다 절반



호르몬이 요산 배출을 억제해 요산보 다분해에걸림위험이크다.	혈액순환 장애 자살 에 손상 있음
풍문은 혈관의 항아리가 넓힐 정도로 못건디게하다.관절유체가증상 고혈압기전에 유착이유에어려다.관 개이가 보기에도 위험 그릴까 고르스 리요스기어다.수기노출에유착이	신경 자살 에 손상 있음 있음

[illegible]

“대한 유망할 수 있다”고  
수사는 “착실하게 사육하  
요한 농도가 유망한 신장  
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 농가에서는 농가  
의 유망 농가라고 한다.

## 한양대학교병원

**박세운 감염내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1일/ 독감 1년새 확 늘었다… 아동·청소년 독감 3배 이상 경증, 독감 대처법은 **김진남 감염내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8일/ 이 건 독감보다 전파력 10배… 이 겨울 꼭 맞아야할 성인 백신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19일/ 찜맛에 커피·술·담배 즐기는 부장님, 그러다 뼈에 명 송송 나오 **주민숙 피부과 교수** 머니투데이/ 12월 28일/ BTS 뷔도 “알레르기 때문에 가렵다”… 일상 방해 ‘빨간 닭살’ 뒤잡자 **김정은 피부과 교수** 동아일보/ 12월 30일/ ‘피부 지옥’ 26년 만에 싹…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1월 2일/ “이제명, 초음파까지 가진 않은 듯”… 흉기 찔린 ‘경정맥’은 어디? **김희진 신경과 교수** 서울경제/ 1월 4일/ “건망증 심각” 우울한 백지영… 40대 이전에 온다는 ‘경도인지장애’에 관리는 **송승환 심장혈관중추외과 교수** 조선일보/ 1월 11일/ 아이들에 꿈 심어주고 폐암으로 세상 떠난 애연가 윌트 디즈니 **정민성 외과 교수** 서울신문/ 1월 16일/ 생존율 100.1%의 암… 갑상선 검진 딜레마 **조용일 응급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1월 22일/ “일단 녹여” 동상 걸린 발 뜨거운 물에?… 한파 속 한랭질환 쉽게 뵈었다간 **하태경 외과 교수** 국민일보/ 1월 23일/ 수술 후 배꼽 옆에 웬 덩어리가… “로봇으로 복벽 재건 권합니다” **고주연 피부과 교수** 서울신문/ 1월 23일/ 때밀기 금물, 샤워는 짧게… 가려움증 심하다면 목욕법 바꿔 보세요 **이경근 외과 교수** 동아일보/ 1월 27일/ 암 세 차례 전이… 모두 극복하고 ‘완치’ **안병규 외과 교수** 동아일보/ 1월 27일/ 암 세 차례 전이… 모두 극복하고 ‘완치’ **성원재 신경과 교수** 머니투데이/ 1월 31일/ 일론 머스크 “텔레파시 칩, 뇌 이식 성공” 환호에 신경 전문의들 “글쎄”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헤럴드경제/ 12월 1일/ “포고 전력” 후 입적 선택 자  
승... 전문가들 “미래 계획 후 극단선택 드물지 않다” 머니투데이/ 12월 8일/ “성적  
행동패턴이 남들과 달라요...” 이런 행동 보이면 ‘성도착증’ 머니투데이/ 1월 9일/  
SNS에 목숨 건 ‘공증’, 혹시 병?... 연극성 성격장애 자가 진단법/ 머니투데이/ 1월 12  
일/ 문어 빨판만 봐도 식은땀 ‘줄줄’... 한 공포증 극복할 수 있을까? **문진화 소아정  
신경과 교수** 한겨레/ 조선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12월 7일/ “휴대전  
화 하루 4시간 이상 청소년, 정신건강·악물 위험 높다” **조희운 안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22일/ 한양대병원 조희운 교수팀, 눈꺼풀 세정·진정 티슈 ‘눈닥터’ 개발 **한명훈  
신경외과 교수** 머니투데이/ 1월 1일/ 노화 해결할 열쇠?... “젊어질 수 있다면” 주사  
맞으려 일본행까지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7일/ 가족 외식도 병원 구내식당서... 간  
이식 96% 성공, 명의 이승규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중앙일보/ 1월 27일/ 래퍼  
'타이거JK' 활동 중단도... 새벽 통증에 잠 못자는 척추질환/ 서울신문/ 1월 30일/ 바  
람만 스쳐도 아파드는 MZ... '맥스·하이볼·막맥'과 헤어지세요

## 한양대학교국제병원

박계영 종합검진센터 교수 중앙일보/ 12월 17일/ 골다공증 예방에 수영이 좋다? 우리  
리가 잘못 아는 '뼈 상식'

# HANYANG NEWS

2024년 1월 ~ 2월

## 한양대학교의료원

### 외과학교실, 2024년 탈장 심포지엄



한양대학교의료원 외과학교실은 지난 2월 3일 의과대학 본관 6층 TBL룸에서 '2024년 한양대학교병원 탈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탈장센터장 하태경 외과 교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로봇탈장수술 등 최신 의료기법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양대학교병원

### 루게릭병클리닉, 2024년 루게릭병 환우회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월 12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루게릭병 환우와 가족들을 초청해 '2024년 루게릭병 함께 극복하기: 환우, 가족, 의료진 소통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루게릭병클리닉은 최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국내 및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의 2군에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운영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험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 제22차 QI 경진대회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월 12일 본관 3층 강당에서 환자 안전문화 정착과 의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2차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 21개의 팀이 참여했으며 이 중 11개 팀이 구연 발표를 진행했다.

### 간호국 신규 간호사의 날 행사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월 18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입사 첫돌을 맞은 새내기 간호사를 축하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 간호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배 간호사의 격려 카드가 담긴 선물 증정식, 키팅 만들기, 포토존 운영, 선배 간호사의 응원이 담긴 축하 영상 상영,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 본관 1층 로비 고객센터서비스센터 신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월 30일 병원 본관 1층 로비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신설하고, 2월부터 방문 고객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오신 분, 진료협력, 고객지원 등 3가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원에 처음 방문하는 고객도 상담부터 진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2024년 제7회 암센터 심포지엄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월 2일 의과대학 본관 6층 TBL룸에서 '2024년 제7회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태경 암센터장은 "한양대병원 암센터는 암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위해 다학제협진,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다양한 복합치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의료기법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로봇수술센터, 로봇수술 연500례 달성 기념식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월 6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로봇수술 연500례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두경부외과, 외과 등에서 총 508건의 로봇수술이 이루어져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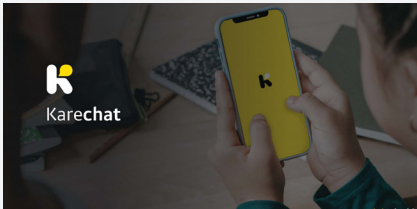
### 2024년 전반기 정년퇴임식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월 19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전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2024년 전반기 정년퇴직자 명단: 방사선종양학과 전하정 교수, 류마티스내과 유대현 교수, 소화기내과 윤병철 교수, 원무팀 박현택 과장, 간호국 허은영 계장, 양정욱 계장, 박재나 계장, 최정배 계장, 영양팀 최항금 계장, 김경화 계장, 이미경 계장



## 고객 참여형 양방향 AI 챗봇 케어챗 오픈



한양대학교병원은 고객 참여형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 기반 AI 챗봇 '케어챗'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에 도입된 '케어챗'은 기존에 환자들이 콜센터, 홈페이지, 병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료예약, 변경, 취소 등의 의뢰서비스를 카카오톡 병원 채널 추가로 AI 챗봇을 통해 병원과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연구중심병원 컨설팅 보고회



한양대학교병원 의학연구원은 지난 1월 18일 의과대학 계단강의동 4층 임우성 국제회의실에서 '연구중심병원 컨설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중심병원 현황, 컨설팅 보고회, 한양대학교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2024년 교직원 신년 하례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월 2일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원장단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

다. 이승환 병원장은 2024년을 '환자중심병원으로의 전환과 혁신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세대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구리소방서와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구리소방서와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리소방서는 응급환자, 심정지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시기적절한 전문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부터 3주기에 이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시설 및 환경관리,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성과관리 등 모든 분야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월 31일 사회복지팀, 소아청소년과, 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역사회의 의료취약계층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24년 전반기 정년퇴임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월 31일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2024년 전반기 정년퇴직자 명단: 간호국 양은주 계장, 고객지원팀 우정미 계장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 제11차 한양 류마티스리뷰 코스 강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개원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제11차 한양 류마티스리뷰 코스(Hanyang Rheumatology Review Course)' 강좌를 개최했다.

### 2024년 개원의 연수강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2월 18일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대회의실에서 'The K-류마티스 한국인과 한국의로 환기에 최적화된 류마티스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2024년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 인물동정



**최동호 교수,**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 선출**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최동호 교수가 최근 실시된 한국줄기세포학회(KSSCR) 대의원 선거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1년간이다.



**변순현 팀장,**  
**질병관리청장 표창장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무기록팀 변순현 팀장이 지난해 12월 8일 '2023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결과보고회'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4년 1월 ~ 2월



Hihy 건강저장소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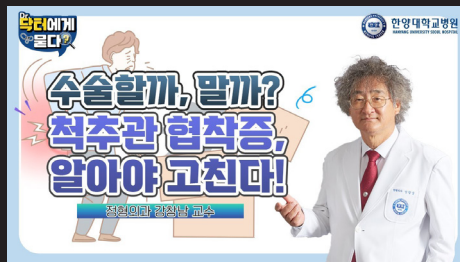
배상철 · 남보라 교수 류마티스관절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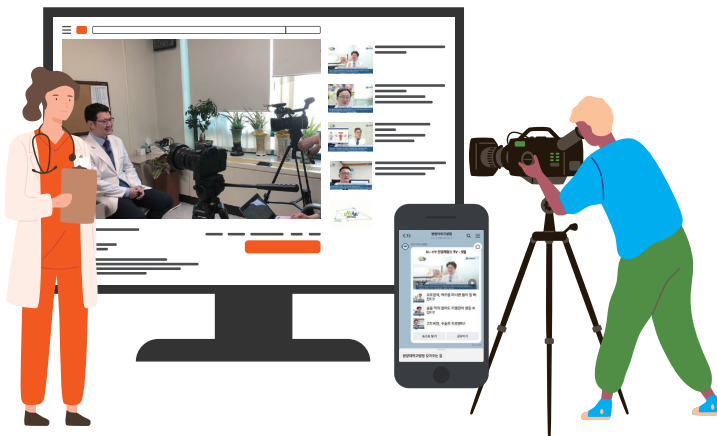
국형돈 · 이연주 교수 관상동맥질환



백광흠 교수 척추의 신경외과적 치료



강창남 교수 척추관협착증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pf.kakao.com/\\_WxgaRu](http://pf.kakao.com/_WxgaRu)



YouTube  
'한양대학교병원(HYUMC)'  
<http://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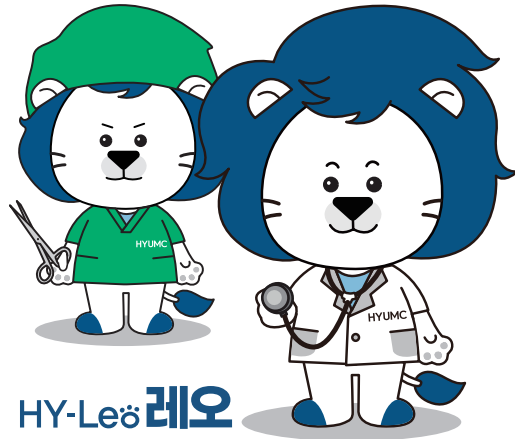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post.naver.com/hyumc-pr>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http://pf.kakao.com/\\_lxbMku](http://pf.kakao.com/_lxbMku)





HY-Leo 레오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 한양대학교병원 포스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01 카더라통신 파헤치기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카더라' 소문, 정말일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한양대학교병원 전문의가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 02 건강 크리에이터

평소의 생활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바꿔드립니다. 행동 패턴, 식습관 등 나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 03 카드로 보는 건강 Tip

짧고 임팩트 있게! 한번 보면 잊지 않는 건강 정보를 직관적인 이미지와 함께 전달합니다.

### 04 바로 아는 건강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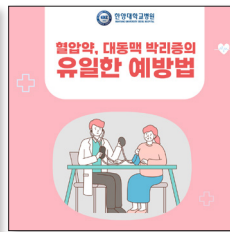
건강이 궁금하다면 드루와! 증상, 질병, 원인, 치료방법 등 보다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 05 로봇수술에 대한 모든 것! 로봇닥

다양한 질환을 좀 더 섬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로봇 수술! 각 분야의 어떤 질환들을 로봇으로 수술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김보곤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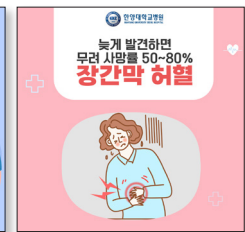
김완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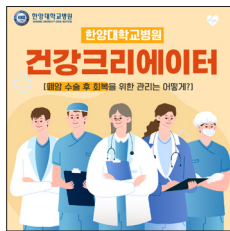
김우현 교수



김유정 교수



박성실 교수



송승환 교수



양승 교수



이강녕 교수



차지환 교수



하태경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소식과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질환 알아보기 &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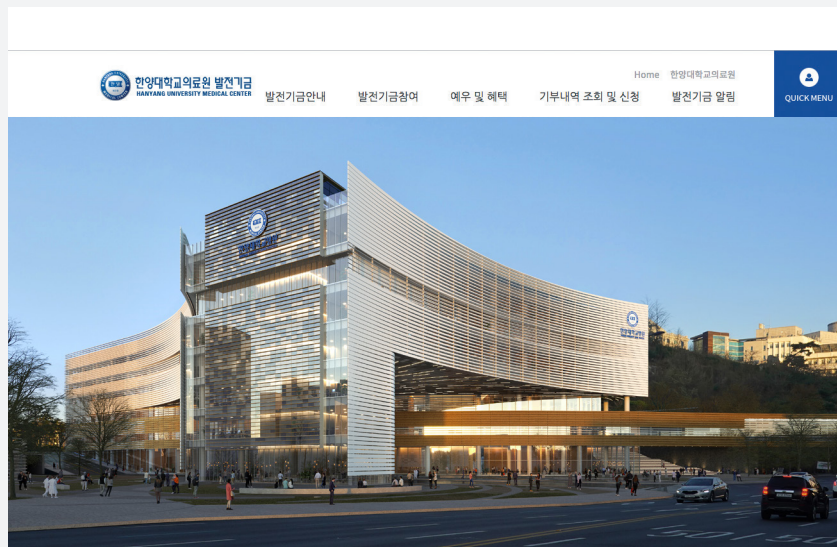
**HiHy**  
건강저장소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발전기금은 의료원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인재양성, 연구개발, 학술지원, 환경개선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의학을 선도할  
최첨단 스마트병원 신축에  
동행해주시요.



발전기금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 기부 분야

<b>인재양성기금</b> 우수 인재 발굴 및 교육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b>학술지원기금</b> 활발한 학술활동 지원으로 의학발전 선도
<b>연구개발기금</b> 연구역량 강화로 스마트한 메디컬 허브 구축	<b>환경개선기금</b> 진료환경 개선으로 환자중심병원 실현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 기부 방법

#### 방법 1

#### 약정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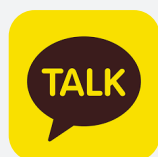
- ▶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접속 후 약정서 다운로드 및 출력
- ▶ 약정서 내용 작성
- ▶ 대외협력실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hmcfund@hyumc.com)

#### 방법 2

#### 온라인 약정

- ▶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또는 QR코드 인식
- ▶ '온라인 기부' 클릭
- ▶ 약정 내용 작성 및 제출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발전기금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채널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기금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 전달 및  
기부자님과의 1:1 소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채널로  
연결됩니다! (+채널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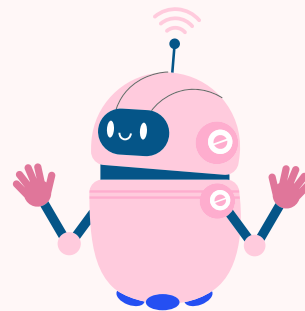
# 기부자 명단

2023년 12월 ~ 2024년 1월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이창원 고객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김천기 교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오동호 포항성모병원	이주학 늘맑은내과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정자현 정자현내과				
1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권순주 직원	권오균 직원	김경래 교수	김용진 연세내과	안유현 교수
	오영하 교수	이영준 태양상사	최진미 직원		
50만 원 이상~1백만 원 미만	국은영 직원	최원준 다채움피부과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강창남 교수	강홍구 한양정형외과	고주연 교수	공상훈 직원	김도윤 서울병원
	김명숙 직원	김명희 직원	김문영 직원	김병제 김병제내과	김성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	김이석 교수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김 진 직원	김진녀 직원
	김태완 홍익안과	김희수 수원제일정형외과	박미숙 직원	박정하 직원	박진식 MS재건병원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배근형 교수	서정심 고객	성명순 직원	손유경 직원
	손희중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신태양 부평힘찬병원	심경아 직원	심지훈 양평병원	양 현 직원
	염상철 동문	이경석 교수	이경섭 이경섭정신건강의학과	이규용 교수	이두연 서울병원
	이봉근 교수	이성필 메디안병원	이진규 교수	이창훈 교수	이희제 연세정형외과
	정규성 교수	정승원 상쾌한이비인후과	정우성 서울병원	정재홍 더정형외과	주일한 메디안병원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최성훈 교수	최윤영 교수	최충혁 교수	최혁중 교수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한현수 직원	황규태 교수	황윤중 윤비노기과	익 명 고객
	10만 원 미만	권난희 직원	권연희 직원	김나영 직원	김명환 직원
김애경 직원		김춘애 직원	김희나 직원	문병임 직원	박경숙 직원
박미숙 직원		박미옥 직원	박상혁 직원	박선영 직원	박유순 직원
박지경 직원		박진희 직원	서혜영 직원	손진석 직원	송승희 고객
신정미 직원		안계현 삼성무지개소아청소년과	안미경 직원	양미영 직원	연제호 활기찬의원
염주일 고객		오기향 직원	오정님 직원	오홍석 건양대학교병원	유혜경 직원
육수영 직원		윤용호 아이사랑소아청소년과	음희재 직원	이경철 직원	이미경 직원
이승건 서울병원		이의산 고객	이정희 직원	이현주 직원	임연희 직원
임지영 직원		전순아 직원	진춘희 직원	최순익 고객	한경수 고객
황미현 직원		황희복 직원	익 명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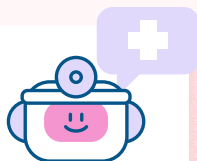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병원, 케어챗 서비스로 더 스마트해집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외래 및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한 케어챗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AI 기반 기술이 적용된 케어챗 챗봇을 통해 24시간 병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한양대학교병원을 만나보세요.

## 진료 전 단계가 줄어듭니다!

### 진료예약 ➡



**초진 환자**에게는 더 **편한 예약**을,  
**재진 환자**에게는 더 **빠른 예약**을!

진료과 선택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증상별 진료과를 추천하고  
진료예약 이력을 기반으로 의료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 또는 가족에게  
예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사전문진 ➡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사전문진**하세요!

공통문진, 진료과문진을 미리 할 수  
있어 빠른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환자의 문진 정보는 데이터화 되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클릭 ➡ 접수 및 대기



**병원 도착 후 위치 기반으로 접수하고,**  
**실시간 대기 순서까지 파악!**

진료과 선택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증상별 진료과를 추천하고  
진료예약 이력을 기반으로 의료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 또는 가족에게  
예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진료 후 단계가 쉬워집니다!

### 진료비 ➡ 간편결제



**카카오와 연결된 카드로**  
**빠르고 간편한 결제!**

챗봇 내 결제 플러그인으로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등으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주차정산 ➡



**집으로 갈때도**  
**끝까지 편리하게!**

주차 정산 키오스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차 정산이 가능합니다.

### 제증명 ➡ 발급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OK!**

진료 후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 시스템은 순차적, 단계적으로 오픈 될 예정입니다.

#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내시경▲	이오영	월, 화▲, 수, 금▲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해외연수(2024.01.01~2024.12.31)		
	이항락	월▲, 수▲, 금, 토(3주)	월, 화, 수▲,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월▲, 화▲, 토(4주)	월▲, 화▲,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화, 목▲	월▲, 수▲, 목, 금▲	담낭, 담도, 췌장
	최성지	화▲, 수, 금	월▲, 화, 수▲, 금▲	담낭, 담도, 췌장
	윤아일린	화, 수, 토(1주)	수▲, 목, 금	간질환
	박진화	수▲, 목, 금▲, 토(2주)	월, 화▲, 수,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상표	월, 목▲, 금, 토(5주)	월▲,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신진호	월, 수, 금, 토(5주)	수	고혈압, 심혈관질환, 예방, 심혈관중재술, 심장조음파
심장내과 2290-8700	임영호	수, 금	월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술,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선천성 심질환
	박진규	월, 목(평동기클리닉), 토(1주)	월(판독), 화	부정맥(상상실상빈맥, 심방세동, 심실빈맥, 서맥), 급사, 실신,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생각 풍선 도자 절제술
	허란	화, 목(판독), 토(2주)	월, 목, 금	판독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폐고혈압, 심조음파
	김우현	목	화,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동맥 경맥) 대동맥질환, 심혈관 및 말초혈관 중재술
	국형돈	화	수, 목	심혈관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 대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술, 경도관대동맥 판막치환술, 일반 심장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금, 토(3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1주)	월	사구체신염, 신장기능,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2주)	화, 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최종욱	수	월, 목, 금	
내분비대사 내과 2290-8300	안유현	월-목, 토(1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1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월, 수, 금, 토(2주)	수, 목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기관지내과▲	문신제	월, 목	화, 목, 금	
	서보미	목	월, 수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윤호주	월,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만성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간질성 폐질환
	손장원	목, 토(5주)		호흡기질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현	화, 금, 토(1주)	월, 화	천식, 기침, 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면역요법, 약물부작용
	박동원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폐질환
	이현	월▲, 화▲, 수▲, 목▲, 금, 토(4주)	월, 화, 수▲, 목▲, 금▲	기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결핵, 폐암, Post-Covid 증후군, 결핵) 항노화질환, 간질성폐질환, 기침
	김보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일반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질환, 폐결핵, 폐암, 결핵/비결핵항산균폐렴, 기도질환(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백선영		수, 목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박병배	화, 목	목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흑색종, 희귀암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기타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오석중	화, 수	목, 금	빈혈,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다발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조혈모세포이식, 적혈구증가증
	박권오	월, 목	화	비노기계림프관염, 전립선암, 신장암, 고혈압, 육종, 신장내분비종양, 췌장도암(췌장암, 담도암), 부인과암, 위암, 대장암
	이종욱	화, 목		
	배현주		장	기
감염내과	김봉영		해	외
	김진남	수, 목	월	수
	박세윤	월	목, 금	
	이영호	화(세포치로), 목	화	
	오재원	월	월	
	김용주	화(금(내시경)	월, 목	
	양승	목, 금, 토(3주)	화, 목, 금	
	박현경	화		
	이현주	목, 금		
	안지혜	수	월	
소아청소년과 2290-8380	나재운	월, 수, 목, 토(13주)	화, 수(삼초음파)	소아심장 및 혈관질환, 부정맥, 성인선천성심장병, 기와사기병, 소아 중환자
	최진주	화	수	
	이경미	월		
	김나영	월-토	월-금	
	일반	월-토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2290-8859	박현경	수, 목, 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이현주	월, 화, 수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영유아진료(일반) 예방접종(일반)		화	
신경과 2290-8367~8368 세포치로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승현	월(루게릭)▲, 목	월(수(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이상운동 장애 초진)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김현영	수, 토(4주)	화, 수,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김영서	월, 금, 토(1주)	월, 수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오기욱	수▲(루게릭), 토(2주)	월▲, 수▲(루게릭), 수▲(루게릭초진)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월, 화, 목, 토(2주)	월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치매, 허혈성중풍
	성원재	월, 화▲, 토(15주)	월▲	뇌혈관질환(루게릭병, 치매, 유전성 신경계 질환, 두통, 어지럼증)
	정수	목, 토(3주)	월, 화,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용성	수, 목, 금▲, 토(4주)	목▲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 의학과 2290-8419	김현기	수▲, 금, 토(3주)		일반 신경과 질환
	일반	월		
	김석현	월, 수, 목(3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성원	화, 금, 토(3주)	월, 수,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김인향	월, 수, 토(3주)	수, 목, 금	소아정신의학, 소아/성인 ADHD, 발달 지연
	이건석	화, 목, 금	화	양극성 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일반		월, 화, 목, 금	일반 정신과질환
	고주연	월(루미파루과), 화, 금▲(13주), 토(9주)	월, 금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김정은	월, 수▲, 목, 토(24주)	화, 수	여드름, 피부염,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 결핵, 지루성 피부염, 건선
	주민숙	수, 목, 금, 토(1주)	월, 목	피부염, 아토피,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피부과 2290-8434 레이저 클리닉▲	김기연	월, 화, 목, 토(5주)	화	
	일반	금, 토	월, 수, 목, 금	일반 피부질환
	하태경	화	월(비만), 금	고도비만대수술, 복강경로봇 위암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이주희	월, 목	목	비만, 위암, 위장관질환, 탈장, 지방종, 복강경, 로봇수술
	최지윤	화, 금	수	혈관과, 신장이식
	이경근	목	화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월	간, 간기능,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김경식	금	수	담낭, 간담, 복강경수술, 간이식
	정윤경	월, 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간이식,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안병규	월, 수	수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외과 2290-8444	박성실	화	금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자궁경, 복강경, 말초수술
	정민성		해	외
	차치환	수, 금	화	유방질환, 유방암, 로봇수술
	손준혁	금	화	소아: 소아탈장, 음낭수종, 소아외과질환, 성인: 지방종, 복강경 탈장수술, 외과일반질환
	일반	월-금	월-금	소독
	손준혁	금	화	소아탈장, 소아복강경수술, 선천성소화기 기형, 항문직장기형(쇄형), 선천성 거대결장, 소아종양, 설소대, 소아변비, 당뇨병후, 소장재활, 지방종
	김혁		월, 수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정효준	월	화	폐암, 식도암, 중격동종양, 기흉,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김원기	금		판막질환,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 동정맥루 수술
	이연주		금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동정맥루 수술
심장혈관 흉부외과 2290-8461	송승환	화, 목		흉부종양(폐암, 식도암, 중격동종양, 흉벽종양), 흉벽기형(오목가슴, 새가슴), 기흉, 다한증, 흉부외상
	최충혁	월, 수	수	술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술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목	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2290-8473	김이식	수	월, 수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대량손상
	이진규	목	화, 목	술관절 클리닉(관절경화, 인공술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창훈	월, 금	수	수부외과 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성훈	수	수, 금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배근형	토	화, 금	소아정형(소아골절, 족관절, 고관절)
	일반	토	월-금	일반 정형외과질환

\* 2024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경추클리닉	백광흠	월, 수, 토(1주)		요통, 디스크(머리/허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추종양
	이형중	목, 토(3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목, 토(2주)	월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목요일 오전 경추클리닉(요추 재진진료도 가능)
	최규선		월,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모야모야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나민균	화	화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수두증
	홍승우	화	목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 TX)
	한건희	화	금	응급실 통해 온 두부외상 환자 fu 진료
성형외과 2290-8560	일반	월-금	월-금	토요일 일(일반)은 교수님 진료일만 가능
	김연환	해 외 연 수		
	정민숙	목, 토(15주)	화, 목	하자재건(미세수술) 및 당노발, 소아성형, 안면외상, 만성창상, 레이노 증후군
	김효성	화, 토(2주)	수, 금	미용성형(눈), 양성종양, 만성창상, 육창
	정형화	월, 수, 토(3주)	목	두경부암재건, 안면외상, 림프부종, 육창, 하자재건
	김지영	수, 금, 토(4주)	월	유방재건, 피부암, 안면외상, 흉터&켈로이드
	일반	월-토	월-금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월, 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종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화, 목, 토(5주)	화, 목	고위험임산,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목, 토(5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24주) 목요일 오전 여성암생존자클리닉
	이원무	화, 금, 토(2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금지현	월, 수, 토(13주)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임한웅	수, 금	월	성인씨시 매시시 소아안과, 역시 신장안과, 성형안과, 백내장
	안성준	해 외 연 수		
	이원준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김유정	월, 토(3주)	수, 목	각막질환, 건성안, 루마티스안과질환, 소그렌중후군, 백내장
	김지홍	월, 목, 토(14주)	화, 목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신용운	금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김경래	목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이비인후과 2290-8580	태 경	월, 수	수	갑상선암, 두경부암, 후두암, 구강암, 로봇수술, 음성질환
	조석현	월, 화, 금수면클리닉, 토(1주)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 무호흡
	송창면	화, 목, 토(3주)	화, 목(음성클리닉)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정재호	화, 목	화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최해원	토(4주)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희령	수, 금, 토(25주)	목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용태	화, 목	화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비뇨의학과 2290-8593	박성열	월,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소아 비뇨기과
	조정기	월, 금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화, 수	화, 수	결석, 로봇/복강경 수술, Endourology, 신장암, 방광암, 비뇨기 종양 항암치료, 신장이식, 전립선 비대증
	정규환	수, 금	수, 금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결석, 혈뇨, 방광염,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일반	목, 금	목, 금	일반 비뇨기계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김준엽	월(루게릭), 화, 목, 토(1주)	목, 금	심폐재활, 뇌신경재활(이상운동), 암재활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CT sim	박혜진	월, 화, 목, 수, 금▲	화, 월수목금▲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신경과 침샘치료, 방광암연구환자(p 박권오)
	정주현	월, 수, 금, 화목▲	월, 수, 화, 목금▲	부인암, 전립선암, 소화기암, 림프종, Sarcoma, Brain Tumor, 기타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수		RI치료
치과 2290-8671	황경균	월, 화, 토(2주)	월, 화,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토(4주)	화, 수	임플란트, 잇몸/뼈이식술, 턱얼굴 성형수술, 턱얼굴 골절수술, 기타 구강외과 수술
	한지영	월-수, 금, 토(2주)	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정혜전	월, 목, 금, 토(4주)	월, 목,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임승원	월, 수, 목, 토(24주)	월, 수, 목	심미교정, 수술교정, 투영교정, 중장년교정, 소아교정(치아발출장애, 턱성장조절, 예방교정), 소아예방치료(불소, 홈메우기), 소아충치치료
	인희진	월-목, 토(2주)	월, 화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일반보철, 충치치료
	일반	월-토	월-금	일반진료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일반	월-토	월-금	일반진료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월	목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황환식	화	금	
	송재철		화, 수(135주)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이수진	월	월, 수(24주)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김인아		월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민지희		수, 목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307 휴진)
	일반OM	월, 수, 목, 금, 토(3주)	금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골관절염2
	전재범	화, 수, 금, 토(2주)	화, 목, 금, 토(2주)	통풍, 경피증(전신경화증), 레이노현상, 류마티스관절염, 재발성류마티즘
	김태환	화-목, 토(13주)	월, 화	강직척추염, 척추관절병증
	성윤경	월, 수, 금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소그렌중후군, 골다공증,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최찬범	화, 수, 목, 토(2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혈관염, 건선관절염, 강직척추염, 베체트병, 통풍, 루푸스, 골관절염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조수경	월, 수, 금, 토(3주)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염증성근염, 통풍
	남보라	화, 금, 토(12주)	월,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김용범	금, 토(3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정은지	토(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최세림	월, 수, 목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질환, 근골격계재활, 발크리닉
	이규훈	월, 화, 목, 토(3주)	화, 목	족부재활, 스포츠의학, 뇌졸중, 류마티스질환
통증의학과 2290-9216	김초롱	화, 금	화, 금	신경병성성통증, 척추통증, 급만성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이봉근			
	최성훈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목(1주)	월	소그렌 중후군, 강직척추염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 관련 건성안, 공막염, 포도막염, 백내장, 각막질환, 콘택트렌즈
	안성준	해 외 연 수		
류마티스피부과	고주연	월	수(13주)	류마티스 피부질환
류마티스 예방접종 클리닉	김봉영	해 외 연 수		
	김진남		화(24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박세윤		화(13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센터 2290-9550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주)	금	가정의학
	일반HP	월-금, 토(2주)	금	가정의학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4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illegible]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생명 지킴이  
입니다

PM 12:30

의료진의 연구결과물을 관리하는  
의학사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학학술정보실

이현정 과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학학술정보실에는 의료진의 연구를 지원하는 의학사서가 있습니다.

책자부터 디지털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저널까지 다양한 학술 콘텐츠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현정 과장.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의료진의 연구 결과물이 제대로 출판되는지 확인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연구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